복지야성

2024년 4월 11일

본문

머리말 ····· 3
복지기계 ····· 4
행복 ····· 14
전문가 ····· 18
직업 야성 ····· 25
소진과 타성 ····· 35
선택과 집중 ····· 42
자연주의 사회사업 ····· 50
현실론 ····· 57
대학생 ····· 62
미션 비전 ····· 77

단편

1. 사회사업가의 숙제 ····· 83
2. 님비형 자원봉사 ····· 84
3. 지역 주민이 자원? ····· 87
4. 요양보호와 활동지원 ····· 88
5. 사회사업 운동 ····· 89
6. 행사 원칙 ····· 91

미주 ····· 94

머리말

사회사업 야성이 있었습니다.

꿈과 열정으로 설레던 시절, 순수 초심으로 좌충우돌하며 고뇌하던 시절,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울고 웃던 시절…

그 시절 그 꿈과 열정, 그 순수 초심, 그 땀과 눈물 속에 사회사업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 야성을 살리고자 관련 글 몇 편을 모았습니다.

야성(野性)이 생생할 때 비판적으로 성찰(野省)하여 스스로 경책하던 거친 소리(野聲)입니다.

이로써 깨어 있으려 합니다.

선배가 고민하고 토론하던 주제에 대해 후배도 그리하곤 했습니다.

무에서 시작하여 초보 수준을 되풀이하다 흐지부지 다시 무가 되어 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주제들에 관한 생각을 글로 정리하여 나눈다면 후배는 그 초보를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뜻에서 이야깃거리 몇 편을 모았습니다.

사회사업하다 보면 한 번쯤 고민하거나 토론하게 되는 주제들에 대해 생각이 나아간 만큼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절차탁마하고 싶습니다.

최신 원고를 http://welfare.or.kr에 파일로 공유합니다.

임의로 인용 복사 인쇄 배부하시고 만만하게 질문 토론 비판해 주십시오. 우편, 메일, 전화, 문자, 화상회의, 대면회의, 어떤 방식이든 다 좋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15나길 20-6 (302호) servant@welfare.or.kr 010-3080-8197

복지기계

1. 복지사업 역사와 복지기계

복지사업 역사는 전문가주의 발달사입니다.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 속에 있던 복지 기능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사업으로 접수해 온 전문가주의의 복지 정복사입니다.

전문가주의 발달사는 복지기계 발달사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을 사회사업가와 복지기관의 복지기계로 대체해 온 역사입니다.

미주 1 : 전문가주의의 야사

참조 : 50쪽 '복지 자연력' | 미주 2 : 복지기계

2. 복지기계의 등장

산업화 도시화로 사회구조와 생활방식이 바뀌고, 문제나 욕구가 복잡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나 지역사회의 복지 기능은 꺼져 가는 심지나 상한 갈대처럼 보였을 테고, 그래서 정부와 사회사업가들이 나서게 되었을 겁니다.

더러는 불만을 다스리기 위해, 더러는 표를 얻기 위해, 더러는 먹고살기 위해, 이런저런 이익을 좇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정부와 사회사업가들이 차츰 복지의 전면에 나서면서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후방으로 밀어냈습니다.

복지 주체였던 사람들을 대상자와 자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꺼져 가는 심지를 덮고 상한 갈대를 꺾어 버렸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사회사업가와 복지기관으로 대체했습니다.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복지기계로 대체했습니다.

미주 [3] : 그래야 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3. 복지기계의 모순

1) 소외 모순

소외된 사람의 복지를 이루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소외시킵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지' 않으니 당사자가 소외됩니다.
당사자가 선택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사업가 쪽 계획 수단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니 당사자가 소외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제 삶 제 복지에서조차 소외됩니다.

사회적 소외에서 인격적 소외로, 상대적 소외에서 절대적 소외로, 외적 소외에서 내적 소외로, 더 구차하고 서글픈 소외로 악화합니다.

2) 자주 모순

스스로 복지를 이루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서 오히려 그 자주성을 해칩니다. 자주하던 삶까지 잠식 침식하여 복지 중독을 일으키고 자주성을 마비시킵니다.

대상자 처지가 되지 않게 해야 할 사람을 오히려 이런저런 사업의 대상자로 끌어들입니다. 대상자 쟁탈전도 불사합니다. 생사람 잡아 대상자 만들기도 합니다.

대상자 처지를 벗어나게 해야 할 사람을 고정 대상자로 굳히고 심지어 종합 대상자로 관리합니다.

대상자 처지라도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상자가 아니게 해야 할 사람을 대상화하여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후원자 봉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상자 처지를 방조하기도 합니다.

당사자 스스로 사회사업가에게 알아서 해 달라고 내맡기기도 합니다. 대상자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대상화에 저항하다가도 차츰 익숙해집니다. 자주성이 마비되어 갑니다.

마약 같은 복지기계, 그 중독성 때문입니다.

3) 공생 모순

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면서 약자를 따로 떼어 돕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약자를 직접 도우니 지역사회는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부담감이 줄어들고 약자와의 관계 소통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약자를 도울 일은커녕 만날 일조차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약자는 더 소외되고 사회는 더 비인간화합니다.

② 메마른 사회를 위한다면서 복지 우물과 시내를 버리고 복지 저수지를 만듭니다.

지역사회 사람 사이에 두루 스미어 흘러야 할 복지를 복지 저수지에 끌어 모아 복지 수도를 통해 공급하니 복지 우물과 시내가 죽어 갑니다.

복지 저수지로 이웃 우물과 인정 시내를 대신하니 지역사회가 더욱 메마릅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듭니다. 인간적인 사람살이를 잃어 갑니다. 사람 사는 맛을 잃어 갑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평범한 사람살이로 주고받던 나눔 도움이 줄어듭니다. 제 마당 제 삶터를 벗어나 행하는 후원 봉사로 복지 저수지 복지 사업에 흡수됩니다. 복지 우물이 마르고 인정 물길이 끊어집니다.

미주 [4] : 약자 모순과 존재 모순

4. 우민화하는 복지기계

자주성은 숫돌 닳듯 스러지고 의존성은 봄 동산 풀 자라듯 점증합니다.

자존심 염치 체면 팽개치고, 굽실거리거나 받는 데 길들거나 호의를 악용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듭니다.

우민화하는 겁니다. 복지기계가 사람을 우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혼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흐리니 그 폐해가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사람다움을 생각지 않고 돕는다면 어찌 우민복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민화하면 삶을 거두어 그저 연명케 해도 고맙다고 합니다.

미주 [5] : 삶을 거두어 연명시키는 복지기계

5. 사람을 떼어 놓는 복지기계

노인이 사라져 갑니다.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복지시설로 갑니다. 복지 서비스 찾아 몰려다닙니다. 자존심 염치 체면 품위 팽개치고 앞 다투어 달음질합니다. 동네에서 노인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이느니 병원이나 요양원에 못 가고 복지관에도 가기 어려운 노인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노인을 데려갑니다.

가정과 동네에서 구실이 줄어들거나 입지가 좁아진다고 아예 허물어버리고 노인들의 별천지를 만듭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기회를 앗아 갑니다. 어른 노릇은커녕 당신 삶의 주인 노릇 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노인은 노인끼리! 이렇게 노인 복지 별천지를 만드는 게 불편합니다. 노인을 떼어 놓는, 노인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복지판 고려장이라고 할지 모를, 이런 일에 사회사업가가 가세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6]

노인뿐 아닙니다. OO복지원, OO촌(미주 7), 영구OOOOO… 마치 뭐 분류 수거하듯 약자를 분류 수용하는, 마치 뭐 쓸어 담듯 약자를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복지판 인종 청소라고 할지 모를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회와 분리되어 복지기계로 생존 연명하는 약자가 있습니다.

약자 복지 별천지, 약자 집단 거주지, 어떤 곳은 유배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곳의 사회사업가라면 '해배'를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리적 해산은 몰라도 사회적 해배는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릇 사회사업가라면 약자를 분류 분리하는 일에 삼가 나서지 말고 방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불가촉천민 흉악범 전염병자 다루듯 약자를 떼어 놓으려는 체제에 하수인 노릇 하거나 가세해서는 안 됩니다.

6. 복지기계의 악순환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타는 사람 있다고 합니다.

복지기계를 쓰면 오용 남용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지책을 만들어도 교묘히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기계가 고도화하면 부작용도 고도화합니다.

복지기계가 뛰어가면 문제와 욕구는 날아갑니다.
복지기계가 날아가면 내성과 욕심은 타고 갑니다.

복지기계는 더한 갈증을 일으키는 짠물입니다.

복지기계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한계 비용 체증하고 한계 효용 체감하니 갈수록 부담이 가중됩니다.

항생제를 쓰다 보면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더 무서운 병균이 생겨나듯
복지기계를 쓰다 보면 더 복잡다양한 문제와 욕구가 생겨납니다.

7. 복지기계의 혐의

당사자가 우민화합니다.
지역사회가 비인간화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이 퇴화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죽어 갑니다.

복지기계 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책임이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복지기계가 이런 사태에 편승 가세하여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방 결정타를 더하여 아주 허물어 버리는 복지기계의 영향은 실로 가공할 만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간의 나눔 도움을 후원 봉사로 바꾸고 배타적 복지대행업으로 바꾸고 비인간적 제도와 상품으로 바꾸어, 자주 공생하던 삶과 사람살이를 약화 소멸 변질케 하는 영향을 만만히 볼 수 없습니다.

심지가 꺼져 가고 갈대가 상하는 것을 복지기계 탓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복지기계는 꺼져 가는 심지를 덮어 버리고 상한 갈대를 꺾어 버린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복지기계 닿는 곳에 혼을 잃어 가는 사람이 있고
복지기계 성할수록 관계 소통 쇠하는 사회가 있으니

사람이 우민화하고 사회가 비인간화하는 데 복지기계가 한몫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8. 복지기계, 不可不可

1) 불가, 불가

복지기계의 모순, 우민화하는 복지기계, 사람을 떼어놓는 복지기계, 복지기계의 악순환, 복지기계의 혐의를 생각하면 복지기계는 그야말로 불가, 불가하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불가불, 가

복지기계라야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복지기계의 효용이 너무 큽니다. 복지기계 비판이 무모하거나 부질없어 보입니다.

복지기계라도 있어 다행인 당사자, 복지기계를 쓸 수밖에 없는 사회사업가를 생각하면 복지기계 비판이 공연한 트집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복지기계 비판의 한계를 생각하면 복지기계를 불가하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불 가하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불, 가/불가

이러므로 '너무 따지지 말자. 단언하지 말자.' 합니다. 사람 사안 상황을 헤아려 변통하기로 합니다.

4) 이러다가도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생각하면, 사회사업 역사를 생각하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복지기계의 후환이 두렵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사회사업 미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필요성이나 효용이나 장점만 내세워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되도록 복지기계 사용을 삼가되 사용한다면 안전장치를 갖추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사용함이 좋겠습니다.

행복

행복을 논함이 사회사업가로서는 무모하거나 부질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회사업 안에서 행복에 대해 생각이 나아간 만큼 정리했습니다.

1. 하필 행복

하필 행복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회가 사람 사는 것 같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로써 행복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행복해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좇아 행할 따름입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좇아 행하면 당사자나 둘레 사람이 행복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고 누릴 때 행복해합니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는 곳에서 행복해합니다. 다만 행복이 사회사업 동기나 목표는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좇아 살아갈 따름입니다. 이로 인해 때로 고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오해 비난 질시 핍박 가난 외로움에 시달리고, 끝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다만 뜻을 좇아 살아갈 일입니다.

뜻을 좇아 살다 보면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복해도 좋고 불행해도 좋습니다. 다만 뜻을 좇아 행하되,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뿐입니다.

사회사업에서나 개인의 삶에서나 행복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감사하며 누릴 뿐입니다.

2.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과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불행해지기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사회사업가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한다면, '마음을 잘못 먹어서 불행한 겁니다. 마음만 고쳐먹으면 됩니다.'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생태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안에 있다 할 수도 없고 밖에 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안과 밖이 상관하여 이룹니다. 안과 밖 어느 쪽도 그 자체만으로는 행·불행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밖이 아무리 나빠도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 잘못, 내 무능, 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이웃 동료가 고통을 당하고 기관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도 마음먹기에 따라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역경에 대하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은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는 말이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며 역경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역경이 지나가기까지 참고 견딜 만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적절한 말일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대상자라면 대개 그럴 겁니다.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고통을 함께하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저 참고 견디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사회사업 대상자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행복하게 해 주겠다?

1) 그럴 수 있을까요?

행복할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유지한다고 해도 항상 행복을 느끼거나 의식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미주 8

사회사업으로 대상자를 행복하게 해 주려 함은 바람을 잡으려 함과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를 행복하게 해 주려는 생각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라거나 행복하게 해 주려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사회사업 목표로 삼을 순 없습니다.

2) 행복하게 해 주겠다 하면

①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사람은 높고 대상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대상자의 격이 떨어져 보이기 쉽습니다.

② 행복하게 해 주려는 마음에서 복지사업 대상자로 만들곤 합니다. 조금만 불행해 보여도 가만두질 못하고 생사람 잡아 대상자 만들기도 합니다.

더러는 함부로 문제라 규정하고 전문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들이댑니다. 사랑 후원 봉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무례를 범합니다.

③ 더러는 대상자가 만족하거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안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바심합니다. 대상자 만족도에 민감하다 못해 종노릇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유익한지 마땅한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대상자가 만족하거나 행복해하면 좋다는 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칫 '행복한 OO' 같은 우민복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4. 행복과 경쟁

남보다 낫거나 적어도 남보다 못하지는 않아야 행복할 수 있다면 행복은 결국 남의 불행을 딛고 서는 게 됩니다.

상대적 빈곤감까지 해결하려는 행복 추구는 끝없는 경쟁을 초래할 겁니다.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여 기어이 다른 사람을 불행에 떨어지게 하고야 말 겁니다.

경쟁에는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이 사람을 이기게 도우면 지게 되는 저 사람은 어찌합니까?

경쟁에서 비켜서지 않으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복지사업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습지도 사업으로 이 '아이' 등수가 오르면 그만큼 떨어질 다른 '아이들'은 어찌할까요?

사회사업은 경쟁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경쟁을 돕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사회사업가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는 공생을 돕는 사람입니다.

미주 9 : 행복과 가치

전문가

1. 전문직이라고 하려면

1) '사회사업은 전문직이다.'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예컨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이 그런 일일까요?

사회사업이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라고 더 잘하는 일도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거나 사회복지사라서 특별히 더 잘하는 일, 그런 일은 있을지라도 극히 드물 겁니다.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누구나 자료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궁리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경험으로써 터득되고 숙련되는 일이 많습니다. 개인의 지혜 성품 소질 열정 노력으로 좌우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2) '사회사업은 전문직이다.' 하려면,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사회사업이 그런 일일까요? 그런 일이라면 사회복지사도 사회사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별다른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있다 해도 그렇다고 '사회사업은 전문직이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2. 전문가라고 하려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하려면, 남다른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개인적 노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라서’ 남다르게 잘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주 10 : 수월성

그런 게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미주 11
실은 벌거벗었는데, 기껏해야 속 보이는 옷을 겨우 걸쳤을 뿐인데…

벌거벗은 사회복지사…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검증하거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이론을 아주 조금, 그것도 어설프게 배웁니다. 전공이랍시고 이렇게 배우니 어찌 전문가라 자부하겠으며 어찌 전문가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실질이 없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이는 부끄러운 명예입니다. 차라리 무시당하느니만 못합니다.

남다르게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로 어떤 일을 남다르게 잘하여 그 일에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 가운데 대다수는 사회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한다고 다 사회사업에 남다르게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 남다르게 잘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라면 사회복지사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특별한 지식과 기술로써 하는 사람, 특정 분야에 남다른 실력과 철학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의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전문성의 상징

사회복지사 정체성이 약해질 때면 차별화니 고유 영역이니 하며 전문성의 상징처럼 내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태체계 이론, 기획서 쓰기, 사례관리 따위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로써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할 수 있을까요?

1) 생태체계 관점

오랫동안 생태체계 관점을 사회사업 전문성의 상징인 양했습니다. 사람을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 그 관계와 상호작용이 좋아지게 돕는다는 점이 여타 인간봉사직과 구별되는 전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회사업에 고유한 관점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라고 더 잘 알거나 잘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더 개인을 직접 지원하는 데 치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기획서 쓰기

한동안 기획서 써서 자원 많이 끌어오는 능력을 전문성인 양했습니다. 이로써 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서 쓰는 일은 이미 연구소 대학 시민단체 기업에서 잘해 오던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가 더 잘하는 일도 아닙니다.

지원하는 쪽이나 신청하는 쪽이나 사회복지사 세상이라서 사회복지사가 유리하다는 점을 빼면, 사회복지사라서 잘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기획서 써서 돈 받아다 돕는 방식은 폐단이 큽니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3) 사례관리 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주선하고 조정하는,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라서 잘하는 일도 아닙니다.

미주 12 :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사의 고유 업무?

4) 상담 기술

사회복지 전공으로 상담 기술을 갖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별다른 상담 기술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술 나름이고 쓰기 나름이지만, 사람에게 기술을 쓴다는 게 꺼림칙합니다.

자기는 문제를 초월한 사람인 양, 득도한 사람인 양하는 꼴이 거슬립니다. 반복 요약 해석 반영 직면 명료화 따위의 기법이라고 하는 그 상투적 말씨가 메스껍습니다. 잔꾀 부리는 것 같아 역겹습니다. 아이로 취급하는 것 같고 사람 다루는 것 같아 불쾌합니다. 점수 따위로 평가 조종하려 드는 것 같은 어떤 질문은 유치하다 못해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나 산전수전 겪어 온 사람에게 사회사업가의 어쭙잖은 기술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특별히 상담 훈련을 받고 상담 실무를 하는 상담 전문가라면 몰라도, 보통의 사회사업 교육을 받고 일반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보통의 사회사업가라면 그야말로 어설프게 재주 부리는 꼴이기 쉬울 겁니다.

참조 : 47쪽 '상담 치료 기술' | 미주 13 : 굿 윌 헌팅

상담에 여러 기법이 있고, 같은 기법이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기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4. 알아야 잘 도울 수 있을까요?

1) 당사자 정보

당사자에 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얼마나 알아야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정보 나름이고 알기 나름이지만, 사회사업은 대개 몰라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잘됩니다. 알아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야 잘됩니다.

문헌이나 지역조사나 제삼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용할 때는 선입견과 일반화를 경계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사회도 다 같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지역사회라도 항상 그대로는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사자에 관한 부정적 정보라면 아예 알려고 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모르는 체하는 편이 나을지 모릅니다. 긍정적 정보라도 때가 되기 전에 발설하면 '어떻게 알았지?' 하며 언짢아할지 모릅니다.

사안 상황 나름이지만, 당사자는 나를 모르는데 나는 당사자에 관해 조사하여 알고 만난다는 사실이 더러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할지 모르나 사회사업가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나에 관한 어떤 정보를 기초로 이런저런 지원 계획을 세워 내게 접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당사자에 관해 아는 것 나름이지만, 뭘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 자료나 제삼자를 통해 알아봐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야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습니다. 몰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따름입니다.

미주 14 : 잘 모른다, 그러니 성의가 없다? 잘 도울 수 없다?

2) 사회사업 지식

① 얼마나 알아야 사회사업할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인생을 알아 가고 알아 가면서 살아가듯 사회사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죽을 때까지 시작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회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직자는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얼마쯤 살펴보고 실무자는 해당 사업의 문헌과 사례를 얼마쯤 참고함이 좋겠습니다.

참조 : 62쪽 '실무 준비와 구직'

② 많이 알아야 잘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런 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아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③ 많이 배울수록 사회사업 잘할까요? 배우기 나름이고 사람 나름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배워서 위로 올라가 버리거나 좋은 데로 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너무 바빠지거나 몸을 사리거나 약아지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울수록 당사자를 더 대상화하는 사람이 있으니…

④ 안다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검증하거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지식을 아주 조금 어설프게 배웠으니 애당초 무엇을 안다 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람 사안 상황을 겪으면서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는 게 달라지거나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갈수록 오히려 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사업 지식이 많지 않거니와 많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안다 할까 두렵습니다. 아는 줄로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미주 15

5. 전문가라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특별한 지식과 기술로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회복지사 앞에 그만큼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복지인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내맡기고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하며 의존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을 전문가만 하는 특별한 일,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떠맡기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나게 아는 것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대단한 자격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회복지사 때문에 사회사업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운운함이 이런 부작용 말고 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 인정 여부가 사회사업 실질에 무슨 영향을 줄까요?

전문가라고 하면 사회사업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사회사업하는 데 무슨 지장이 있을까요? 미주 16

자신을 다스리는 데는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라면 합당한 실력과 성과가 있어야 하고 책임과 윤리가 엄중하니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비하는 데와 정신 차리고 분발하는 데 자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 남의 평가에 마음 쓰는 것 자체가 이미 구차합니다. 다만 실질을 갖추는 데 힘쓸 일입니다.

미주 17 : 전문직의 배타성 | 미주 18 : 타전공자 비전공자에 대하여

직업 야성

1. 좁은 문, 험한 길, 낮은 자리

학벌이 좋을수록 어려운 곳에 헌신해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을 맡아야 합니다. 먹고살 만한 사람일수록 보수가 적은 곳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고, 많이 배운 사람이 쉬운 일 편한 자리에 안주하고, 먹고살 만한 사람이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 세상 참 불공평하다 하지 않을까요?

실력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보수를 더 주는 곳, 높은 자리, 편안한 직책… 좋은 것을 다 차지한다면, 이는 이른바 '우월한 지위'의 남용이고 오용입니다.

대도시 복지관과 달리 지방 시설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섬이나 농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복지 전공이라고 불평등이니 재분배니 하지만, 사회사업 현장의 불평등은 자못 심각합니다.

어디서나 사회사업할 수 있고 어디서든 사회사업하기 나름이지만, 좁은 문, 험한 길, 낮은 자리로 다투어 가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뜻이 있거나 사정이 있어서 대도시 복지관이나 병원 연구소 정부기관에 간다면, 그곳에서 남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 봉사해야 합니다. 답습 안주하지 말고 개척 개선 개발 공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나는 꿈꾼다. 좋은 곳에 가지 않기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를. 혜택 받은 만큼 더 열심히 땀 흘릴 수 있기를."

2002. 10. 11 김OO '혜택 받은 사람, 내가 갈 길' (광활 게시판 2264번 글)

2. 사회사업 3대 신화

1) 사회사업가는 가난하다?

사회사업가는 영세민 수준이다, 사회사업가끼리 결혼하면 수급자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가난할까요? 그런 사회사업가를 보았습니까? 스스로 가난하게 살거나 개인 사정 때문에 가난한 사회사업가 외에 사회사업가라서 가난한 사람은 보기 어려울 겁니다.

관점의 차이라고요? 상대적이라고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매일처럼 보고 들으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주 19 : 사회복지사는 배고픈 직업? | 미주 20 : 걸인을 만날 때

2) 사회사업가는 힘들다?

현장의 힘든 일 궂은일은 주로 비전공자나 저학력자나 자원봉사자가 해 왔습니다. 전공 대졸자로서 힘든 일 궂은일 하는 사회사업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행정 업무 외에 직접 돕는 행위로서는 힘든 일 궂은일 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궂은일 하는 사회사업가도 있습니다. 다만 궂은일은 대개 단순 육체노동에 가깝습니다. 그런 일에 사회사업가만큼 보수를 주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시장에서 그런 일의 가치를 얼마나 쳐 줄까요?

어떤 직업보다 힘들어 보입니까?

공장 노동자,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미용실, 슈퍼마켓, 편의점, 옷가게, 식당, 유흥업소, 경찰관, 정치인, 연예인, 아나운서, 공무원, 교사, 대학교수, 작가, 영화배우, 개그맨, 디자이너, 목사, 기업인·사업가,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변호사, 의사, 약사…

사회사업가보다 편해 보입니까? 그런 직업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부의 규제, 시민의 감시와 비판, 소비자의 요구와 평가, 경쟁 업체의 위협이 다른 직업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① 정부 : 대부분 민간이 설립·운영하고 정부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수준이라서 그런지 까다롭게 감독·처벌하지 않았습니다.

② 시민단체 : 정부와 기업을 날카롭게 감시·비판하면서도 사회사업가에게는 관대한 편입니다. 일반 시민의 인식도 그런 편입니다.

보통 사람이 잘 하지 않는 일, 궂은일을 맡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사회사업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 감사하는 편입니다.

③ 이용자 : 도움이 끊기거나 줄어들까 걱정하는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러는지,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④ 경쟁자 : 사회사업가 간의 경쟁, 기관 간의 경쟁이 없지 않으나 다른 업종의 생존 경쟁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Self-Pity by D.H. Larwrence

I never saw a wild thing sorry for itself.

A small bird will drop frozen dead from a bough without ever having felt sorry for itself.

영화 '지 아이 제인', 미 해군 특전대 훈련에 자원한 사람들에게, 입소 첫날 밤 비 내리는 해변에서, 교관이 이 시를 읊어 줍니다.

'이 훈련, 혹독할 것이다. 그럴 줄 알고 지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일 겁니다.

교관 어게일은 이 훈련에 대하여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훈련에 지원한 오닐 중위가 여자라서 못마땅한 듯 오닐 중위를 혹독하게 다룹니다.

오닐 중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겨냅니다. 너무 힘들다고, 할 만큼 했다고, 더는 못하겠다고, 이 정도면 잘 견딘 거라고, 스스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막사 안 오닐 중위의 자리에 시집 한 권이 보입니다. 훈장이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습니다. 어게일 교관이 걸어 나가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오닐 중위가 책을 펼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시 'Self-Pity'가 클로즈업되며 영화가 끝납니다.

'얼어 죽더라도 자신을 동정하지는 않는다.'

작은 새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사람임에랴.
그런 줄 알면서도 남과 경쟁하면서까지 스스로 택한 사회사업임에랴.

미주 21 : 자주 옮기지 말자

3)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이론이 실천으로 실천이 이론으로 이어짐을 봅니다. 이론 속에 실천이 실천 속에 이론이 있음을 봅니다.

이론과 실천은 본디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 함은 배운 것이 적은데다 그나마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아는 이론이 적어서 이런저런 현실에 적절한 이론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론과 현실은 짝이 있습니다. 이론도 다양하고 현실도 다양하여 저 이론이 통하는 현실이 있고 이 이론이 통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 이론이 이 현실에 맞지 않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론이 어떤 현실에 맞지 않다 하지 않고 그저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 함이 어쩌면 저 상황에서 나온 이론을 이 상황에 적용해 보고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 맞는 이론을 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현실과 다르다는 그 이론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의문입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기보다 공부가 부족하다 함이 사실에 가까운 건 아닐까요?

스패너로 풀어야 할 너트를 펜치로 풀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잘 풀리지 않는다고 어찌 펜치를 탓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넓고 깊으면 적절히 선택 조합 응용할 수 있을 텐데, 서툰 목수 연모 나무라듯, 두레박줄 짧은 줄 모르고 우물 깊다 한탄합니다.

3. 복지 귀족

사회복지사는 가난하다.
사회복지사는 힘들다.

복지 1세대 가운데 외원 기관을 제외한 일반 복지시설을 두고 생겨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양로원 재활원 고아원, 이른바 수용시설 위주로 돕던 때의 실정을 두고 나온 말일 겁니다.

이사장이나 시설장은 몰라도 보모나 생활교사는 가난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 분들을 보고 '가난하다, 힘들다' 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랬을 겁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대학교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하고 이른바 수용시설에서 보모나 생활교사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하다거나 힘들다는 말은 사회복지사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때와 판이합니다.

그럼에도 걸핏하면 저 전설 같은 이야기로 자기를 연민 동정하며 불평 엄살하는 꼴은 자못 남우세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선배 이야기입니다.
남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 뒤로 구차히 숨지 맙시다.
우리의 부끄러운 실상을 이런 신화 따위로 호도하지 맙시다.

지금 사회사업가는 대체로 중산층에 가깝습니다.

극빈하거나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는 사회경제적으로 다르고 정서적으로도 가깝지 않습니다.

더구나 일단 제도권 기관에 정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한 생활에 젖어 갑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 갑니다.

누추한 곳, 거친 음식, 불편함이나 고생을 심란해하고 차마 견디지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위화감이 커져 갑니다.

복지 귀족에서 멀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복지사업인지,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많이 쓰이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농업귀족 있는 한 농업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했는데, 사회사업도 그렇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거나 힘들면 사회사업가이기에 다행스럽고 고마운 조건이려니와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때때로 거칠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을 스스로 취하여 몸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쳐서 다스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일해지기 쉽고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4. 사회사업 세속화

1) '월급이 적다,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 합니다. 능력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효용보다 많은 경비를 써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매일처럼 보고 들으면서도 그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건 부족하기만 한데 그에 비해 사회사업가들이 쓰고 누리고 가져가는 건 많습니다.

2) 전문가로 알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전문가로 자칭하기까지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모호한 지식, 일반화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지식을 아주 조금, 그것도 어설프게 배웠으면서, 별나게 대단한 지식 기술이라도 있는 것처럼 전문가 운운합니다.

도대체 무슨 실질을 지녔단 말입니까? 그런 게 있다면 자랑할 마음부터 막아야지, 어찌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능력과 효용에 지나도록 칭찬이나 대우를 받게 될까 염려할 일입니다.

3) 좁은 문 험한 길 낮은 자리 외면하고, 넓은 문 평탄한 길 높은 자리 다툽니다. 개척하기보다 소위 좋은 직장에 안주하려 합니다.

희생 봉사 싫어할 뿐 아니라 폄하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희생 봉사 없이 잘되는 일 없건만 희생 봉사 싫다고 시위합니다.

4) 처우가 좋아지면 좋기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며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겠습니까?

너무 세속화합니다. 명예와 이익 앞에서 염치도 체통도 팽개칩니다. 이러다가는 사회복지사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내려가야 합니다.
낮게 녹아들어 소리 없이 깊게 흘러야 합니다.

5. 사회사업 3대 위험

사회사업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사업 자체의 위험에 가깝습니다.

1) 불평등한 관계

사회사업가가 높고 대상자가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사회사업가가 대상자를 아래로 대하는 모양새이기 쉽습니다.

사회사업가 쪽의 재주 재화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거나 나눠 주는 방식이 특히 위험합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당사자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도와야 합니다.

※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도우려는 뜻 곧 사람답게 도우려는 뜻이 정성스럽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서 복지를 이루어 주는 사람인 양 전문가인 양 행세하기 쉽습니다. 당사자를 밑으로 대하는 것 같은 형세가 되기 쉽습니다. 참조 : 복지소학 '성의정심'

2)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칭찬 감사

① 자랑하기 쉽습니다. 과장하여 뽐내기까지 합니다. 알아주기 바라고 심지어는 감사나 보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구차합니다.

② 사회사업한다는 사실만으로 칭찬 감사를 받기 쉽습니다. 실질 이상으로 칭찬 감사를 받곤 합니다. 칭찬 감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과 의욕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 일어나고 구설수에 오르기 쉬우니 시험이고, 자랑하려는 마음조차 은근히 일어나니 시험입니다. 참조 : 복지소학 '자랑', '상찬'

3) 대상화, 종합 대상자 취급, 대상자 확대

① 사람을 '대상화'하기 쉽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전문가로서 복지를 이루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이루게 하지 않고 대신 이루어 주곤 합니다.

② 종합 대상자 취급하기 쉽습니다.

어떤 일로 도움을 받는 이유는 약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사업가는 대상자를 늘 약자인 것처럼 대하기 쉽고 종합 대상자 취급하기 쉽습니다. 온갖 일에 가르치려 들거나 도와주려 하기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부지중에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가난한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행색이 초라한 사람, 어눌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을 대하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③ 대상자를 늘리기 쉽습니다.

사업 규모를 맞추기 위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실적을 위해, 대상자를 확보하고 대상자를 늘리려 합니다. 심지어는 생사람 잡아 복지 대상자 만들기도 합니다. 대상자 쟁탈전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사회사업은 대상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대상자를 자기 삶의 주체로 세워 사실상 대상자가 아니게 하는 일입니다. 대상자 처지를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소진과 타성

소진은 '몸과 마음이 지침'이고 타성은 '억지로 또는 형식적 습관적으로 일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진되지 않고, 타성에 젖지도 않고, 사회사업 오래 잘할 수 있을까요?

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함과 같습니다.

1. 사람은 뜻으로 삽니다.

뜻이 뚜렷하고 그 뜻대로 잘하고 있음을 확인 확신할 수 있다면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 꾸준히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2.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회사업에서 사랑은 소진되지 않게 하는 에너지이고 타성에 젖지 않게 하는 자극입니다.

3. 사람은 재미로 삽니다.

재미가 없으면 오래 하지 못하고 곧 시들해질 겁니다. 얼마간이라도 열심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미를 느끼고 사랑을 받고 재미가 있어야 소진되지 않고 타성에 젖지도 않으면서 사회사업 오래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 뜻

사회사업하는 뜻이 뚜렷해야 합니다. 뜻있게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 왜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사회사업 동기 이상 철학 그 뜻이 분명하고 그 동기 이상 철학대로 뜻있게 잘하고 있음을 확인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진되지 않을 저력도 타성에 젖지 않을 열정도 이런 확인과 확신에서 나옵니다.

사회사업하는 뜻이 분명하고, 뜻있게 잘하고 있음을 확인 확신할 수 있다면, 힘들고 더디어도 꿋꿋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동기 이상 철학이 없다면,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면, 어디로 가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뜻있게 잘하고 있음을 확신은커녕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어찌 소진되지 않겠으며 어찌 타성에 젖지 않겠습니까?

2. 에너지와 자극

에너지 유입 없이 일하다 보면 소진됩니다. 열심히 할수록 빠르게 소진됩니다. 자극이 없으면 대충하게 되고, 대충하면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오래갈 수 있습니다. 타성에 젖는 겁니다.

소진되지 않으려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고 타성에 젖지 않으려면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에너지와 자극의 원천이 사회사업 동료와 복지 당사자입니다.

1) 사회사업 동료

좋은 동료들과의 관계망을 통해 지식 경험 생각, 지지와 격려, 자극과 책선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망에서 에너지와 자극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동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줌으로써 소중한 존재, 책임 있는 존재가 됩니다. 포기할 수 없고 대충할 수 없게 됩니다. 줌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미주 22 : 가상 관계

2) 복지 당사자

당사자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잘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돕고 싶은 선한 근심과 고뇌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당사자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잘하면 칭찬 인정해 주고 힘들어하면 위로 격려해 줍니다. 보람과 감동,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포기하거나 대충할 수 없게 합니다.

3. 재미

1) 배우는 재미

경험자 특히 고수에게 직접 듣고 좋은 동료와 함께 절차탁마하면서 배우는 재미가 으뜸입니다.

사람도 얻고 지식도 얻는 방법입니다. 사회사업계에 정붙이고 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회사업은 방법지가 중요한데 사회사업 고급 방법지는 대개 암묵지로만 존재합니다. 개인 서랍이나 컴퓨터나 머릿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형식지가 적고 그나마 부실합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입니다.

사회사업가들이 글로 정리하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글로 표현하는데 서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까지 글로 옮길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급 방법지가 있는 경험자들을 찾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좋은 사회사업 동료들을 찾아 지식 정보 생각을 나누며 절차탁마해야 합니다.

배우는 재미가 없다면, 그로써 성장 발전하는 재미가 없다면, 비록 일이 편하고 대우가 좋아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오래 하기 어려울 겁니다.

배움과 실천에 진보가 없는데 직위나 보수가 오르면 오히려 스스로 부끄럽고 답답하여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오래 있기 어려울 겁니다.

2) 나누는 재미

배우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바를 동료들과 나누는 재미,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재미, 책과 파일로 두루 공유하는 재미…

이런 재미가 있으면 사회사업 자꾸자꾸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 오래 잘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나누면

① 나누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지식이 있어도 나누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나누는 사람이라야 알려지고 인정받고 쓰이게 됩니다.

② 나누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지식을 나누는 사람은 지식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유용한 지식을 곧잘 찾아냅니다.

정리하여 공유하는 지식은 오래 기억하고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묻어두는 지식은 곧 잊어버리거나 효용이 소멸되기 쉽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정교해집니다. 나누다 보면 남들이 보태거나 다듬어 주고 스스로 다듬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일하는 재미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방식으로 하면 사회사업이 수월하고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에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며 감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재미가 있어야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 오래도록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 여유

1)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준비하고 제안하여 맡습니다. 시키는 일을 하면 그제야 준비하느라 바쁘고, 제 역량에 맞지 않아 허덕거리기도 합니다.

2)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하게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직접 하려 들면 바쁩니다.

3) 집중이 필요한 작업은 남들이 출근하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합니다. 집중이 필요한 문서 작업을 근무시간에 하면 바쁘기만 하고 지지부진합니다. 되도록 교통 혼잡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합니다.

4)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 때문에 바쁩니다.

5) 흔글의 단축키와 개요 스타일과 차례와 메일 머지, 엑셀의 데이터 구조화 요령과 단축키와 기초 함수와 피벗 기능을 숙달합니다. 이런 기능을 몰라서 문서 작업에 시간 낭비가 심합니다.

6) 한계를 인정하고 취사선택합니다. 이것저것 하려 들면 바쁩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여러 분야 여러 사업 가운데 특정 분야 일부 사업에서, 그런 일을 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자리와 역량의 한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할 뿐이라는 지체의식으로 일합니다.

7) 이름 없고 지위 없음을 낙으로 여깁니다. 말단 평 사회사업가로 어려운 사람 가까이에 있음을 복으로 여깁니다. 명예나 지위 따위를 얻거나 지키려는 마음이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8) 많은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버거운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덜면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1) 이기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자신에게도 유익하도록 구상합니다. 자신도 즐기고 누리며 배우고 성장 성숙할 수 있게 합니다.

2) 쉬엄쉬엄 합니다. 사회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 둘 일이 아닙니다. 복지인생 길게 보고 천천히 갑니다.

3) 준비되었을 때 합니다. 강의도 나눌 내용이 준비되었을 때 제안하거나 수락합니다. 요청을 받고 준비하면 곧 채무나 멍에처럼 되어 평안을 잃기 쉽습니다.

4)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처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방법적 사고로 합니다. '없는 걸 어떡해, 안 되는 걸 어떡해, 있는 자원 선용하고 되는 일부터 잘하자.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되면 내려놓거나 돌아가자. 한계를 인정하자.' 이런 마음으로 일합니다.

6) 평가와 보상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건, 남보다 바쁘게 일해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7) '사회사업, 낙을 누리며 기쁘게 행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 기타 – 소유와 소비를 줄입니다. 적게 벌고 적게 씁니다. 가족 동료 이웃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산책과 등산을 즐깁니다. 자연과 벗하여 삽니다. 자연에 가깝게 삽니다.

월급 받는 사회사업가라면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할 일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 들면 기력이 소진합니다.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도 저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은 필요하고 저 일은 필요 없다거나 이 일은 중요하고 저 일은 중요하지 않다.' 할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이런 점에서 필요하고 저 일은 저런 점에서 중요한데, 다 할 수는 없으니 어느 쪽을 선택할까? 어느 쪽을 우선할까?' 할 일입니다.

급한 일, 중요한 일,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마땅한 일일 수 있고, 마땅한 일이 종종 급하거나 중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급하거나 중요하다고 반드시 내가 지금 그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급하거나 중요한 일인가?'와 '마땅한 일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마땅함을 기준으로 취사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익한 일이라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거나 절실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유익하고 중요하고 절실한 일이라도 더 마땅한 일을 위해 포기하는 겁니다.

사회사업 근본과 현실, 정체성과 역량, 가용 자원과 기회비용 따위를 헤아려 마땅히 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자리,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미주 23 : 기회비용

1. 근본과 현실

사회사업 근본과 현실을 헤아려 일을 취사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따위의 근본에 비추어 마땅히 할 일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가용 자원 따위의 현실에 비추어 잘할 수 있는 일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유익하고 중요하고 절실한 일이라도, 사회사업 근본에 비추어 마땅하지 않거나 현실을 헤아려 잘할 수 없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마다 제자리에 충실할 때 사람살이 바탕이 튼실해지고 사람살이 바탕이 튼실해야 사회복지도 든든히 서게 되는 법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우선 충실해야 할 사회사업 본분은 무엇일까요?

2. 사회사업 본분

1) 인복

사람의 복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선린의 복 '인복'입니다. 사회사업은 사람 관계를 주선하고 좋은 이웃으로 살게 거드는 일입니다.

"흔히 복 중의 복은 인복이라고 합니다.

건강 복, 재물 복, 사업 복, 학문 복, 지혜·지식 복, 직장 복, 정신 복, 영혼 복… 모두 사람을 잘 만나야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깨지기 쉬운 복입니다.

과연 인복이 복 중의 복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인복은 대개 천부의 복이거나 스스로 짓는 복입니다. 하늘에 달렸고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선린의 복 '인복'은 사회사업으로 잘 도울 수 있습니다."

2) 공생성

사회의 속성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공생성'입니다. 사회사업은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3) 사회적 사업

복지사업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는 '사회적 사업'입니다. 사회사업은 사회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는 일입니다.

4) 사회적 복지

사회복지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사회적 복지' 곧 사회 속에 흐르는 복지입니다. 사회사업은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3. 복지정책

1) 복지정책을 주창하며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더러는 이렇게 중요한 일에 사회사업가들이 나서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이해합니다.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다만 사회사업가의 처지나 기관의 상황 같은 현장 사정을 생각하면 과연 그럴 만한 여력이 있을지, 겸하여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얼마쯤 여력이 있는 사회사업가도 있겠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정책 운동이 필요한 때도 있겠지만, 사회사업가라고 복지정책을 잘 아는 건 아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정책은 대개 정책 전문가들끼리도 갑론을박하기 일쑤 아닙니까?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 평가함은 물론이고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화뇌동하는 꼴 되기 쉽습니다. 그럼직한 지식이나 논리를 갖추어 정책 운동을 주도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 꼴 되기 쉽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밝혀 앞장서면 혹 따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사회사업을 잘하고 싶습니다.

2) 자기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무임승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도 남이 애써 만든 것을 거저 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미주 24

그러니 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해도 될까요? 제 일만 잘하면 사회적 책임, 그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3) 이런저런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저항하고 개혁하고 쟁취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까요?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어떤 해결책이 최선일까요? 정책 운동, 어떤 일에 어떻게 어디까지 나서야 할까요?

4) 혁명 운동과 사회사업

세상의 온갖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억압 착취 차별 폭력을 없애는 혁명, 정치 혁명, 사회 혁명, 경제 혁명, 환경 혁명…

어떤 혁명에 나서며 어떤 노선을 따라야 할까요?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일은 혁명이 아닐까요? 무엇이 더 근본적인 혁명일까요?

미주 25 : 무엇이 더 크거나 중요합니까?

5) 근본책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는 일이 근본책입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없음이 온갖 문제의 근원이고,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야말로 온갖 복지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아두고 달리 어떻게 해보려는 건 대개 말단에서 비롯하는 일입니다. 말단이나 다스리는 방안이기 쉽습니다.

복지정책은 대개 말단에 쫓기거나 말단을 좇아 만듭니다. 미봉 땜질에 가깝습니다. 여기를 꿰매면 저기가 터지고 이곳을 때우면 저곳이 새기 일쑤입니다. 사회 문제를 뒤치다꺼리하며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복지 바탕을 해치기 쉽습니다.

미주 26 : 사소한 개혁

사회사업이야말로 근본책입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는 일, 사회사업은 근본에서 비롯하는 일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막고 복지의 바탕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4. 상담 치료

상담 치료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얼마나 배워야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학부든 대학원이든 활용할 수 있게 배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과서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이렇게 배워서 하나라도 활용할 수 있겠나 싶고 누가 이걸 다 가르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상담 치료 기술, 대다수 사회사업가의 업무와 거리가 있습니다. 배우기 어렵고 숙달하기까지 비용도 많이 듭니다.

상담 치료 사업 전담자가 아니라면, 상담 치료 사업을 전문으로 할 사람이 아니라면, 배우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상담 치료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사회사업에는 그런 기술 없어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만 해도 잘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참조 : 21쪽 '상담 기술' | 복지소학 '才勝德의 부작용'

치료 나름이지만, 사회사업가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나도 모르게 전문가인 양 행세하려 들지 않을까, 환자 취급 하지 않을까, 관계가 불평등해지지 않을까, 당사자가 환자 노릇 하지 않을까,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낙인 수치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래저래 조심스럽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게 하고 싶습니다. 환자로 보고 치료하려 들기보다, 그냥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게 돕고 싶습니다. 특별한 치료 기법을 쓰기보다 그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방식으로 돕고 싶습니다.

미주 [27] : 환자로 만드는 치료

5. 먹고사는 문제

경제 공동체, 마을 공동 경제 활동…

사회사업가가 경계해야 할 유혹입니다.

수렁 같은 일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좋은 일을 못하거나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적 부를 통한 마을 공동체,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을 공동 경제 활동, 그럴듯하지만 성사하기 어렵고 지속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을의 평화, 생태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불평 시비 다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공동체, 마을 공동 경제 활동, 마을 기업, 농산물 유통…

경쟁에 속하는 일은 아닐까요?

사회사업가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경제 활동이 남과 경쟁하여 남의 몫을 빼앗거나 남을 딛고 서는 것으로 보이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사업은 경쟁이 아니라 공생에 속한 일입니다.

6. 자연생태와 사회생태

1) 태평농법과 공생

태평농법은 비료 농약 쓰지 않고 경운 제초 안 하고 건답에 직파하는 농법입니다. 그야말로 태평한 농사법입니다. 농부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과 땅까지 공생하여 생태가 태평한 농사법입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태평농법에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콤바인 하나만 있으면 수십 수백만 평의 논농사도 혼자 지을 수 있는 그 태평성과 경제성에 함정이 있다. 자본이 농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태평농법으로 농사할 경우 소농들은 몰락할 것이다. 영국 산업혁명기의 인클로저 운동의 한국판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자연공생에 좋은 농법이라도 인간끼리의 공생성이 희생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은 내쫓기고 자본만 독점 활보하는 들판, 그 들판의 생태가 되살아난들 그게 우리 사람의 지속적 공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 천규석, 실천문학사, 1999년. 147~156쪽

2) 무공해 식품과 공생

어느 날 시내 유기농 매장에 다녀와서

"무공해 식품이라는 걸 잔뜩 사다 놓고 왜 이렇게 갑자기 괴로워지는지 화가 또 난다. 이웃끼리 마을 사람끼리 서로 사고팔고 주고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가까운 이웃은 다 버리고 먼 데서 깨끗한 음식만 먹겠다고 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일까? 먹는 것만 깨끗하게 먹는다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일까? - 중략 -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이웃집에서, 가까운 장터에서 쌀도 사고 밀가루도 사고 국수도 사는 게 옳지 않을까? 마음 편한 게 위장 편한 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권정생 산문집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1997년, 90~92쪽에서 요약 발췌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 가치를 기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연주의 사회사업

1. 개념

자연주의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으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1)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2)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습니다.

3) 지역사회의 일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4) 사람들이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약자와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5) 복지가 자연스러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 복지 자연력

사람에게는 복지 본성이 있습니다. 자주하려는 마음이 있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복지 역량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 본성과 역량이 '복지 자연력'이고, 자연주의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그 자연력으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합니다.

미주 [28] : 자연주의 사회사업의 기조

2. 배경

1) 직접 지원 방식의 폐단

복지기관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직접 돕는 방식은

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참조 : 복지경영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② 혜택이 널리 미치지 않습니다.

③ 사회통합을 더디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역사회가 약자에 대하여 적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내가 도움을 받는다면…

인격적 복지를 원합니다.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알고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선택 활용하는 주체적 인간이고 싶습니다.

항생제나 수술 같은 서비스에 내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일방적 서비스 대상이고 싶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서비스는 싫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고, 선택 통제하고 싶고 제구실하고 싶습니다. 주인 노릇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 앞에 약자 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 복지, 자연스러운 복지를 원합니다. 둘레 사람과 지역사회 속에서 자연스러운 관계로 어울려 복지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미루어 사회사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미주 29 : 자연주의 사회사업의 출처

※ 정반합의 역사, 주체 회복

1) 보통 사람의 생활 속에 있던 평범한 일이
2) 전문가들의 특별한 일로 되었다가
3) 보통 사람의 생활 속으로 돌아옵니다.

전문가들도 자신들이 하던 일을 보통 사람 누구나 할 수 있게 생활 속에 풀어내려 합니다.

※ 스포츠(생활 속 운동 놀이 → 엘리트 체육 → 생활체육), 문학(선비의 시·문 → 시인·작가 → 나도 시인·작가), 요리(누구나 요리 → 요리사 → 집에서 해 보자), 언론(입 소문 → 언론인 → 인터넷), 종교(평신도→ 성직자 → 평신도), 의료(민간 → 의사 → 생활의학·민간요법·자연치유) 따위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주 30 : 사례)

전문가들이 가져갔던 일을 보통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보통 사람을 주체로 참여시켜서 함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도 그러합니다.

복지는 본래 사람들 개개인의 자율에 속하던 것이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연대와 상호부조에 속하던 것입니다.

그 복지 기능을 전문가들이 대신 하게 되었고 더러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사업이 되었습니다. 배타적으로 독점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돌려주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 누구나 할 수 있게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기능을 회복하여 다시 복지의 주체로 세우고 싶습니다.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역사회의 이런저런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 속에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고 싶습니다.

3. 전문가주의와 자연주의

1) 전문가주의는 복지를 소유하고, 자연주의는 복지를 소통시킵니다.

2) 전문가주의는 사람을 대상자나 자원으로 끌어들이고, 자연주의는 각 사람을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자주 공생하게 합니다.

3) 전문가주의는 복지사업을 빚내고, 자연주의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빚냅니다.

4) 전문가주의는 외장형 복지를 만들고, 자연주의는 내장형 복지를 살립니다. ※ 내장형 복지 : 지역사회 사람살이 속에 있는 복지

5) 전문가주의는 복지기계를 쓰고, 자연주의는 복지 자연력을 쓰게 합니다.

6) 전문가주의는 배타적 독점적 정복자의 길을 가고, 자연주의는 복지를 만인의 삶으로 놓아주는 해방자의 길을 갑니다.

7) 전문가주의는 복지가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에서 멀어질수록 선진 복지사회라고 하고, 자연주의는 복지가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에 가까울수록 좋은 사회라고 합니다.

미주 31 : 무서운 전문가주의

4. 자연주의 복지 공작소

복지를 해체하고 놓아주어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살림살이가 되게 하자. 복지시설과 제도 속에 복지를 집어넣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직접 서비스하는 틀을 벗어나자.

평범한 사람들 속에 천부적으로 잠재하고 자연적으로 발현하던 복지 기능을 회복 개발하고 사회 속에 복지를 내장함으로써, 복지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고, 약자도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고 보통 사람들처럼 복지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복지세상이 되게 하자.

전통적 공동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욕구가 생겨났고, 산업화 도시화 전문화로 사회체제와 생활방식이 바뀌었으니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든 손을 써야 했겠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이 전방에 나서서 아예 대신 해 버리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후방으로 보내 버렸다. 상한 갈대를 꺾어 버리고 꺼져 가는 심지를 덮어 버렸다. 이제 다시 세상 사람들을 복지 전방에 내세워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직업, 그들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복지기관과 사회사업가들은 공작하고 지원하자.

주는 사람은 시혜자 치료자 교사 상담자 후원자 봉사자 지위로 부모 같이 행세하고, 받는 사람은 대상자 케이스 내담자 환자 수혜자 원생 따위로 대상화하여 약자 노릇 하는 불평등한 관계, 인격과 자존심의 상처… 이러한 찌꺼기를 걷어내고 부작용을 줄여 보자. 전문가라는 사람의 권위에 머리 숙이고 약자 노릇 하지 않게 하자. 도움을 받을지라도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적 존재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자.

복지를 생활 속에 스미어들게 하고 시설 바깥 세상에 흐르게 하자. 복지를 해체하고 놓아주어 인간 세상,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살림살이가 되게 하자.

2002. 10. 5 자연주의 복지 공작소(http://dewelfare.net)를 열며…

미주 32 : dewelfare의 의미

5. 유비쿼터스 복지 혁명

1990년대 초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걸 알고서 복지 지향을 '복지로 보이지 않으나 어디에나 있는 복지'로 정했습니다. 유비쿼터스 복지 혁명을 일으키자! 했습니다. Invisible Ubiquitous Welfare

유비쿼터스 복지 혁명은 지역사회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 복지 기능을 내장하고 소통시키는 일입니다.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어디서나 무엇으로나 사실상 복지 기능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다시금 가슴 설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U코리아 비전 : 제3공간에 대한 도전과 기회

① U코리아비전 : e코리아 → U코리아

e코리아 계획은 초고속망과 PC 등 IT인프라를 대량으로 보급하여 물리공간에 있는 사무실·가정·개인·사물 등을 컴퓨터 속에 가급적 많이 집어넣어 정보화하겠다는 전형적인 정보화 전략 모델이다. ~

U코리아는 반대로 물리적 공간과 대상에 컴퓨터를 많이 심어 놓아 손에 닿는 대로 발길이 가는 대로 컴퓨팅환경에 접하게 하겠다는 패러다임 전환적 발상이다.

②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 개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실세계의 각종 사물들과 물리적 환경 전반에 걸쳐 컴퓨터들이 편재되게 하되 이것이 사용자에게는 컴퓨터로서 겉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환경 내에 효과적으로 심어지고 통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용자가 컴퓨터라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나 도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③ 21세기 아젠다 – U코리아 비전

인류역사상 도시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이어 네 번째로 유비쿼터스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정보혁명은 전자 공간 속에 사무실과 쇼핑몰과 도서관을 집어넣고 시공을 초월하는 마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물리공간에 남아 컴퓨터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대상이 훨씬 더 많다. ~

유비쿼터스 혁명은 반대로 물리 공간 속에 컴퓨터를 집어넣는 것이다.

도로, 다리, 터널, 빌딩, 건물 벽, 천장, 화분, 냉장고, 구두, 시계, 종이, 물 컵, 책상 등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수많은 환경과 대상물 속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를 심는 것이다." – 전자신문 2002. 4. 15.

이 기사를 사회사업 이야기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1) 복지제도 복지시설 같은 복지전용체계를 많이 만들어서 그 속에 온갖 복지를 집어넣는다?

지역사회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 속에,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 복지를 내장한다!

2) 유비쿼터스 복지는 어디에나 있고 특별히 복지로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낙인 없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3) 유비쿼터스 복지 혁명은 복지 별천지 같은 데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행하던 복지를 해체하여 세상에 풀어놓는 혁명입니다.

복지를 복지시설에 집어넣을 것인가, 세상에 풀어놓을 것인가?

복지 별천지를 만들 것인가, 보편적 복지세상을 만들 것인가?

2002. 4. 16

"당신은 모르지만, 수많은 화학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OO화학은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 보이지 않는 곳에 OO화학이 있습니다." 2005. 11. 10 여의나루역 버스 정류장에서 본 광고입니다.

현실론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밝혀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따위를 이야기하니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하자 하니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잘 알아서 현실에 잘 대처할 것 같은데 현실에 매이고 현실에 쫓깁니다. 현실 올무를 더 조이고 현실 부담을 가중하고 현실을 더 각박하게 만듭니다.

이를테면, 평가가 힘들게 하는 현실이라면서 평가에 목매고 경쟁함으로써 자신과 남들을 더욱 힘든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시간 돈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시간 돈 인력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일하며 바쁘다 돈 없다 힘들다 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말이면, 그 이상이 그릇된 현실 인식에 기초했거나 비현실적으로 세운 허황한 이상임을 방증할 뿐입니다.

남이 하는 말을 두고 '그건 이상이다. 현실은 다르다.' 함도 온당치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현실을 헤아려 하는 말일 테니 다르다면 그 사람이 보는 현실과 자신이 보는 현실이 다르다 할 일입니다.

사회사업 현장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제약이 많습니다.

현장의 동료들을 생각하면 현실론을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저 잘 들어 주고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알아주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 정리해 봅니다.

1. 어떻게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까?

1) 돈을 써서 돕는 편이 현실적일까요?

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쓰려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더 받게 되면? 그 만큼 간섭 요구 평가 까다로워지고 일이 많아져 다시 돈이 부족하다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돈'을 써서 돕는 방식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입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사업비가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은 돈을 쓰지 않아야 잘되는 일이 많고 돈을 쓰지 않아도 잘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2) 기술로써 돕는 편이 현실적일까요?

사회사업가는 대개 별다른 기술이 없고 갖추기도 어려운 현실인데, 기술을 쓰려 합니다.

어떤 기술이든 학교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배울 수 없고 다른 데서 따로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배운다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활용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기술로써 돕자는 건 그야말로 비현실적입니다.

사회사업 나름이지만, 보통은 별다른 기술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됩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만 해도 잘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잘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사업은 기술을 쓰지 않아야 잘되는 일이 많고 기술을 쓰지 않아도 잘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3) 사회사업가가 해 주는 편이 현실적일까요?

사회사업가가 기획하고 자원 개발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듭니다. 혼자 하니 실적을 많이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하게 도우면 수월하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실적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이 살아나서 다음에는 조금만 주선하거나 거들어도 쉽게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회사업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이룰 수 있는 건 무궁하니, 많은 실적을 원한다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일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사회사업가가 직접 복지를 이루어 주는 방식은 시간 돈 인력이 많이 들고 실적은 고만고만합니다. 시간 돈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참으로 비현실적입니다.

이와 달리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는 효과가 크고 효율이 높은 방식입니다. 돈과 인력 적어도 실적은 쉽게 빨리 많이 낼 수 있으니 이렇게 돕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실적으로 경쟁하는 현실에서 어느 쪽이 실적을 더 많이 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니 꺼림칙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를 경쟁시켜 명예나 이익 따위로 조종하려는 쪽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2. 현실이 좋아지면 사회사업 잘할 수 있을까요?

「갈매기의 꿈」 이야기입니다.

조나단은 먹이를 좇는 여느 갈매기들과 달리 '자유'를 좇아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완벽하게 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먹이 구하는 일, 현실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여느 갈매기들처럼 해 보기도 했으나 곧 부질없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지만 사정하거나 비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차츰 높여 가며 꾸준히 새로운 비행술을 터득했습니다.

구름 위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유선형 낙하 비행으로 바다 속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하늘의 바람을 타고 내륙에 들어가 곤충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깃배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현실 '자유'를 좇으니, 낮은 현실 '먹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도 그렇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보면 낮은 현실은 별것 아닌데,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저 갈매기들처럼 그렇게 낮은 현실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깃배가 늘어나면 갈매기의 삶이 달라질까요?

3. 무엇을 현실이라 합니까?

현실은 인식의 산물이고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현실로 보며 어느 쪽을 더 엄중히 여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땅히 여기는 바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이 있다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생각한다면, 양심과 하늘과 역사를 의식한다면…
이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면, 이를 거슬러 달리 어떻게 해 보려는 건 진짜 현실을 모르고 철없이 좇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현실이라 합니까?

대학생

1. 실무 준비

1) 지식

해당 분야 전문도서와 논문, 자료집을 몇 권씩 읽습니다. 전문도서는 두어 권이면 족합니다. 최신 논문은 10여 편이면 해당 분야 최신 이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연수 세미나 대회의 최근 자료집 5권쯤 보면 실무 현장의 관심사를 알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안내서나 지자체의 사업지침서, 잘한다는 기관 두어 군데의 사업보고서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현장 실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정보

해당 분야 관련 법령을 꼼꼼히 읽고, 정부의 시책을 외우고, 주요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를 살펴봅니다. 법령은 대개 5~10가지에 불과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분야에 상관없이 읽습니다. 정부 시책은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까지 암기합니다. 민간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는 직능단체나 유명 기관 웹사이트 몇 군데 살펴보면 됩니다.

3) 기술

① 해당 분야 현장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여 실무를 체험하고, 나아가 자신이 그 업무를 맡는다면 어떻게 할지 습작해 봅니다. 계절별, 월별 사업을 골고루 경험하고 습작함이 좋습니다.

현장 실무는 대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무 준비에 1년은 걸립니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어렵습니다.

※ 기술을 더 잘 숙달하려면 '사회사업 습작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매주 당번을 정하여 사업 계획서 습작품을 발표합니다. 당번은 현장 선배에게 특정 사업의 계획서와 관련 문서를 구해 습작품을 만들고, 회원 수만큼 복사해 옵니다. 실제를 상상하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이야기해 봅니다. 한 학기에 열 번만 해도 1년이면 20건의 습작품과 관련 문서를 얻게 됩니다.

② 공문서 작성과 처리 방법을 익히고 흔글의 단축키와 개요 스타일 차례, 엑셀의 단축키 함수 필터링 피벗 기능을 숙달합니다.

참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운영편람, 기관 문서 규정

4) 인맥

해당 분야 행사에 자주 가서 명함을 드리며 인사합니다.

인사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행사에 몇 번 참석해 보면 그 분야 주요 인물을 곧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한두 번 인사해서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나 여러 번 하면 미안해서라도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한두 분만 친해지면 그 분들을 통해서 주요 인물들과 연결됩니다.

해당 분야 주요 카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 분야 사회사업가들의 블로그에 댓글을 자주 남깁니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행사에 참가하거나 실습·봉사할 때마다 후기를 올립니다.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인사함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하며 그간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활동기록이나 기획서가 있으면 드립니다. 업무에 방해될 수 있으니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취업하면 그 분야 그 지역의 좋은 사회사업가들을 두루 찾아뵙고 인사합니다. 그 분야의 일이나 그 지역 이야기를 여쭙고 의논합니다. 신입은 인사 다니며 여쭙고 의논하기에 좋은 명분입니다.

2. 구직

1) 해당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어떤 강점이 있는지 밝히고 그 일에 관심 애정 의지 열정이 어떠한지 드러내는 자기소개서와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2) 먼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설명합니다.

자료와 격식을 갖추어 설명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여 기회를 보아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뜻을 세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는데 끝까지 말리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3) 일하고 싶은 기관에 제안합니다. 구인광고를 보고 응함이 아니라 이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원하려는 기관과 업무를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보를 찾아보고 직원이나 선배들에게 묻고, 업무 지원이나 실습을 하면서 직접 살펴봅니다. 이렇게 기관을 잘 알아보고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면 좋을지 궁리한 후에 지원합니다.

4) 이와 같이 실무를 준비하고 제안하여 취업합니다. 일하면서 다음에 할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여 제안합니다. 이것이 사회사업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길이고, 자기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이러므로 졸업 학년이 되어서도 일할 분야를 확정하지 못했다면 휴학이라도 해서 두루 살펴 일할 분야를 정하고 실무 준비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휴학하기 어렵다면? 이제라도 분야를 정하고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봐야겠지요.

현장을 우습게 여기면, 현장도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사회사업 현장은 연습장이 아닙니다.

3. 자기소개서

1) 표지

OO 지원서

지원하는 때와 곳과 활동 명칭을 쓰고 + 지원서

인상 좋은 사진 한 장, 자기 수식어와 이름, 지원사 한마디쯤 넣어서 표지를 꾸밉니다. 표지 어딘가에 명함 같은 영역을 만들어서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를 씁니다.

2) 지원사

이번 활동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번 활동을 위해 어떻게 생활하려는지, 이번 활동에서 어떻게 배우고 즐기고 누리려는지, 기관과 동료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각오나 약속이나 구상을 밝힙니다.

그 근거가 될 만한 강점, 이번 활동을 잘할 수 있겠다고 볼 만한 강점을 밝힙니다.

기관 쪽에서는 무엇을 알고 싶을까?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한 눈에 보고 싶을까? 이런 관점으로 씁니다.

활동하는 동안 때때로 읽고 초심을 살릴 수 있도록, 스스로 다잡거나 힘을 낼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지원사를 잘 씁니다.

3) 요약 표

<table>
<tr><td>성 명</td><td>나 복 지</td><td>학교</td><td colspan="2">○○대학교 ○○학과 ○○학번</td></tr>
<tr><td>전 화</td><td colspan="2"></td><td>전자 우편</td><td></td></tr>
<tr><td rowspan="11">인 맥</td><td colspan="4">알고 지내는 현장의 사회복지사 성함, 소속, 직함 (전화번호)</td></tr>
<tr><td colspan="4">1.</td></tr>
<tr><td colspan="4">2.</td></tr>
<tr><td colspan="4">3.</td></tr>
<tr><td colspan="4">4.</td></tr>
<tr><td colspan="4">5.</td></tr>
<tr><td colspan="4">6.</td></tr>
<tr><td colspan="4">7.</td></tr>
<tr><td colspan="4">8.</td></tr>
<tr><td colspan="4">9.</td></tr>
<tr><td colspan="4">10.</td></tr>
<tr><td rowspan="2">커뮤니티</td><td>자주 어울리는 모임, 동아리</td><td colspan="3"></td></tr>
<tr><td>자주 가는 카페, SNS</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11">실습
봉사활동
실무지원</td><td>기 간</td><td colspan="3">내 용</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r>
</table>

	기 간	내 용
특강 세미나 학술대회 연수 수련회 견학		
	서명, 저자, 핵심어	
읽은 책	1.	
	2.	
	3.	
	4.	
	5.	
	6.	
	7.	
	8.	
	9.	
	10.	

이것은 '자기소개서'를 요약하는 표입니다. 여기에 채울 내용을 1학년 때부터 만들어 갑니다. 한 건씩 보탤 때마다 자기소개서 본문에 한 건당 반 쪽 이상씩 자세히 써넣습니다. 졸업할 때쯤엔 요약 표가 여러 장이 될 만큼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4) 본문

자신에게 유익하고 읽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도록 자세히 씁니다.

① 사회사업하게 된 배경·과정·동기

② 앞으로 해 보고 싶은 일, 구상, 희망

졸업 후 사회사업 구상이나 희망, 졸업하기 전에 해 보고 싶은 일, 이번 활동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씁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는 바를 자세히 씁니다.

③ 실천(실습, 봉사활동, 실무 지원) 경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활동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사진까지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 활동이 사회사업가로 성장하는 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씁니다. 경험마다 한 건당 반 쪽 이상 자세히 씁니다. 평소 여기 해당하는 활동을 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록해 놓습니다. 당시에 자료나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자세히 쓰기 어려운 경험은 이제라도 생각나는 만큼 씁니다.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 그 업무에 유리한 활동만 추려서 소개합니다.

④ 교육(세미나·특강·연수·학술대회, 캠프·수련회), 견학 경험

교육 행사명, 때와 장소, 주최 같은 개요를 소개합니다. 사진까지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사회사업가로 성장하는 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얻은 배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한 건당 반 쪽 이상 자세히 씁니다. 평소 여기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기록해 놓습니다. 당시에 자료나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자세히 쓰기 어려운 경험은 이제라도 생각나는 만큼 씁니다.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 그 업무에 유리한 활동만 추려서 소개합니다.

⑤ 의미 있게 읽은 책

의미 있게 읽은 책을 소개합니다. 서지 정보를 소개하고, 사회사업가로 성장하는 데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거기에서 얻은 배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책마다 반 쪽 이상 자세히 씁니다. 평소 책을 읽을 때마다 빠짐없이 기록해 놓습니다. 읽은 그 당시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책은 이제라도 정리하되, 인터넷에서 그 책의 사진과 서지정보를 구하여 소개하고 소감이나 배움을 생각나는 만큼 씁니다.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 그 업무에 유리한 책만 추려서 소개합니다.

⑥ 사회사업 인맥

내 사회사업 인생에 영향을 끼친 사회사업가, 존경하며 따르는 사회사업가, 알고 지내는 사회사업가, 종종 만나거나 통화하는 사회사업가를 소개합니다. 성함, 소속과 직함, 관계를 밝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점에서 존경하며 따르는지, 어떻게 교류하는지, 내역을 이야기합니다.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 그 업무에 유리한 사람만 추려서 소개합니다.

⑦ 커뮤니티 활동

자주 어울리는 모임이나 동아리, 자주 가는 블로그나 카페, SNS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참여 활용 활동하는지 소개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나누고 배우는 이야기, 커뮤니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 커뮤니티에 쓰는 글을 추려서 꾸준히 흔글 파일로 정리해 놓습니다.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 그 업무에 유리한 것만 추려서 소개합니다.

⑧ 강점

사회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강점 곧 자신의 장점 가능성 자원을 최대한 많이 씁니다. 되도록 그 강점이 잘 발휘된 경험과 함께 소개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원하는 활동에 살려 쓸 만한 강점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강점은 더욱 정성껏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번 활동에서 강점이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는지, 강점을 어떻게 살려 쓰고 싶은지, 그 기대나 구상까지 쓰면 더욱 좋습니다. 평소에 강점을 발견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록해 놓고,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 그 업무에 유리한 강점만 추려서 소개합니다.

4. 격려 글

기관 소개 자료, 사업 소개 자료, 지원서를 인쇄하여 먼저 부모님께, 그리고 자기소개서 인맥 편에 밝힌 사람을 비롯한 둘레 사람에게 설명하고 격려 글을 부탁합니다.

1) 격려 글 써 주시는 분의 성함 및 학생과의 관계 :

2) 지원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 칭찬, 지지·격려, 조언·당부, 축복

활동하는 동안 때때로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거나 힘을 냅니다. 두고두고 읽고 싶도록, 이 글을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정성껏, 알차게 써 주십시오. 분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뒷면까지 쓰시면 더 좋습니다.

5. 경청 훈련

경청만 잘해도 사회사업 괜찮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때 경청 훈련, 이거 하나만 잘해도 사회사업 실력은 태반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강의 들을 때가 경청 훈련의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해 봅시다.

1) 강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들어가 앞자리에 앉습니다.

2) 부드러운 표정으로 눈을 맞추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돌리지 않고 집중합니다.

자료를 이리저리 넘겨보지 않습니다. 필기보다 듣는 데 집중합니다.

3) 졸리면 양해를 구하고 뒤로 가서 서서 듣거나 세수하고 옵니다.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하거나 '정말요?' '아~' 하거나 '선생님~ 10초만 쉬어요. 강의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합니다.

4) 질문은 강의 내용을 특정하여 간단명료하게 합니다. 잘 대답해 주실 만한 것을 묻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적당한 선에서 그칩니다.

5) '강의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듯한 표현을 삼갑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와 닿았는지 말씀드림이 좋습니다.

6) 늦게 들어오거나 들락거리는 사람, 팔짱끼고 듣는 사람, 기대거나 엎드려 자는 사람, 핸드폰 쓰는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7) '볼 때마다 새로 알게 되는 것이 있으면 학문이 진보했음이고, 의문하지 않던 내용을 의문하게 되면 비로소 진보한 것'이라 했습니다. 같은 주제나 같은 이야기를 다시 듣더라도 그때마다 새롭게 깨닫거나 적용하게 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공부에 진보가 없었거나 교만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미주 33 : 동료의 발표를 경청하기

6. 학창시절을 즐겁게

학창시절을 누리는 데 쓰는 시간이 적어 아쉽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스펙 쌓기에 매달리니 안타깝습니다. 사정이 있거나 나름대로 뜻이 있어 그리하겠지만 그래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 기관에서는 학력이나 경력보다 열정 표정 성품 태도를 중시합니다. 사람만 좋으면 성적이나 스펙에 관계없이 데려가려 합니다. 바탕이 좋고 인간관계 잘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해야 할 과업이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즐기고 누려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활동, 이때가 아니면 누리기 어려운 자유 우정 낭만, 젊음의 특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청년 때, 학생 때에 풍성하게 즐기고 누려야 할 몫입니다.

이는 사회사업 인생의 보험과 같습니다. 꿈과 열정으로 뜨거웠던 날들, 뭉클하고 행복했던 순간들, 가슴 시리도록 그리운 추억, 함께한 형동생 친구들이 있어 다시 힘을 내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창시절의 낭만을 누리며 우정을 쌓고 추억을 만드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 학창시절을 즐겁게, 복지인생을 즐겁게!

복지순례, 정예화캠프, 학습여행, 실무합숙훈련, 시골사회사업, 절차탁마, 백두대간 산행…

정보원 활동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낙'입니다.

정보원 활동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자연 그대로 소박하게 잘 누렸습니다.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낭만이 있었고 그림 같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웃음꽃이 피고 사랑과 감동이 넘쳤습니다. 가슴 시리도록 그립고 정겨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7. 동아리

1) 자체 모임 : 학교나 지역별로 학기당 8회쯤, 회당 2~3시간쯤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① 복지뉴스 나눔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뉴스”를 나눕니다.

② 책 나눔

각자 자기 학습 일정과 방식에 따라, 자기 관심분야와 수준에 맞는 책을 택하여 읽고, 가져와서 보여 줍니다. 줄거리나 주요 개념 한두 가지 소개하고, 또는 한두 군데 낭독하고, 경험 지식 정보 생각을 나눕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발표한 책이라도 사람에 따라 얻는 바가 다르고, 들을 때마다 새롭게 배우고 적용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 발표와 비슷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이로써 다양한 관점을 배울 뿐 아니라 또한 동료의 성장을 돕게 됩니다.

한 가지 책을 정하여 다 같이 읽고 나눔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좋을 책이 있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가끔 그렇게 하고, 보통은 각자 자기 관심과 수준, 자기 공부 계획에 따라 책을 택하여 읽고 나눔이 좋습니다.

※ 책을 선택하는 요령 : 서점이나 도서관을 종종 둘러봅니다. 교수님 서가나 복지기관 자료실을 둘러봅니다. 문학 작품도 좋고 인문·사회과학 서적도 좋습니다. 사회복지 전문 서적 비중을 높여 갑니다.

※ 교과서 읽기 : 개강 후 2주 내에 모든 교재를 두 번 읽습니다. 머리말과 맺음말과 목차를 읽고 마음 가는 곳부터 읽습니다. 재미없거나 어려운 내용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흥미와 진도 위주로 빠르게 독파합니다. 년도 수치 고유명사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보이는 게 늘어납니다. 강의를 듣거나 시험공부 할 때 또 늘어납니다.

③ 경험 공유

지난번 모임 이후에 한 자원봉사나 실습 이야기, 참가한 사회복지 교육이나 행사 이야기, 방문한 기관 이야기, 만난 사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잘 듣고 지지 격려합니다.

2) 외부 활동

① 현장 방문 : 사회사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현장 선배를 만납니다. 좋은 행사와 교육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자료를 모읍니다.

② 동아리 간 교류 : 다른 지역·대학 동아리를 방문하거나 초대합니다.

③ 교수님께서 외부 활동 나가실 때 종종 따라갑니다. 교수님께서 책을 내시거나 세미나에서 발표하시면 그 책이나 발표 자료를 가지고 교수님과 대화합니다.

④ 전국사회복지대학생 정예화캠프, 학습여행, 복지순례, 백두대간 산행, 시골사회사업, 복지관이나 시설 단기사회사업, 절차탁마 학습모임, 책사넷 같은 정보원 활동에 적극 참가합니다.

3) 조직과 운영

세 명이면 넉넉하고 두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위기지학! 자신에게 유익하게 핵심에 집중하면서 혹 좋은 사람 생기거나 생각나면 개별적으로 권합니다. 설명회나 발표회를 열어 동아리를 알릴 수도 있겠습니다.

회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직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안자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갑니다.

회비를 걷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끼리 나누어 냅니다. 오가는 시간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수업이 있는 날, 어차피 학교에 와야 하는 날에 모입니다.

동아리를 위해 따로 무엇인가 준비하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단체로 봉사활동 가지 않습니다.

저마다 제 삶에 충실하면 동아리 나눔도 풍성해집니다. 저마다 그저 자기 공부, 자기 생활 잘하고 그것을 동료들과 나눔으로써 절차탁마하고 누리고 성장하는 겁니다.

친목활동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견학이나 학습여행이나 세미나 참석 따위의 어차피 해야 하는 활동에서 친목과 낭만까지 얻습니다.

이 동아리를 통해 좋은 사회사업가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좋은 학습 문화와 우정과 낭만을 누리며 학창시절을 즐겁게 복지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지와 격려, 지식과 정보를 나누며 자극과 책선으로 절차탁마하는 평생의 벗, 사회사업 동료를 얻기 바랍니다.

훗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복지인의 꿈, 복지인의 길, 복지인의 삶'을 생각하며 당당히 '복지인'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꿈과 열정으로 복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지지와 격려, 자극과 책선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좋은 책을 읽고 견문을 넓혀 지식 지도를 그려 가는 사람들

어디서든 복지를 생각하고 복지를 읽어 내며 복지를 꿈꾸는 사람들
복지 지평을 넓혀 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복지인이 되고자 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사는 정예 복지인이 되고자 합니다.

전국사회복지대학생정예화연합 '사복정연' 동아리

8. 학습권 운동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시행 이후 필수과목 이외의 전공과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선택 여지가 없을 만큼 전공 강좌가 부족합니다.

시험 필수과목은 콩나물 교실이 되어 갑니다. 필수과목은 수강신청에서부터 출석점검, 강의진행, 과제와 시험, 평가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 부지런히 학생들을 살펴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교수님, 학생에게 꿈과 열정을 심어 주고 좋은 현장 연결해 주고 좋은 강좌·세미나에 이끌어 주는 교수님, 사회사업가를 자주 만나고 그 생생한 사례를 강의에 활용하는 교수님, 학생들은 이런 교수님을 목말라합니다.

혹시 연구실적 올리랴 외부 용역 하랴 바쁘고, 사회·발표·토론하느라 바쁘고, 다른 학교에 강의 다니느라 바빠서, 정작 학생들에게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사회복지학과에 투자는 적게 하고 수업료는 많이 받습니다.

※ 한 학기 18학점의 실제 수업 시간은 200시간쯤 되니 등록금이 300만 원이면 시간당 15,000원을 받는 겁니다. 수강생이 100명이면 한 시간 수업에 150만 원(30명이면 45만 원)을 받는 겁니다.

학습권을 찾아야 합니다.

1) 사회복지학과 교수:학생 비율을 최소한 해당 대학 평균 수준까지 개선해야 합니다. 교수:학생 비율 – 교육부 기준 1:25

2) 선택과목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3) 전공과목 정원을 해당 대학 평균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4) 사회복지학과 시설·기자재, 학생활동 지원 규모를 학생 수에 비례하여 해당 대학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2002. 2

미션 비전

1. 개념

1) 미션

미션은 기관의 사명, 기관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관의 존재 이유, 기관을 만든 이유에 해당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이는 '우리 기관은 뭐 하는 곳인가?'에 관한 생각입니다.

① 제도적 미션

대개 법으로 규정합니다. 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a. 사회복지관의 제도적 미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 3대 사업을 시행규칙 별표 3에 상술

b. 장애인 거주시설의 제도적 미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② 사회사업적 미션

a. 과정적 미션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기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기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기

b. 궁극적 미션

지역사회가 입주자도 살 만하고 입주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게 하기

지역사회가 장애인도 살 만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곳이게 하기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곳이게 하기

※ 지역사회

과정적 미션에서 지역사회는 당사자의 지역사회에 가깝고, 궁극적 미션에서 지역사회는 기관의 지역사회입니다.

입주자도 살 만하고 입주자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장애인도 살 만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하면 이는 궁극적 비전에 해당합니다.

복지관의 미션이 복지관마다 다르고 시설의 미션이 시설마다 다를까요? 보건소의 미션이 보건소마다 다르고 동사무소의 미션이 동사무소마다 다를까요? 얼마쯤 가감하거나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미주 34 : 시설의 법적 미션과 사회사업적 미션

2) 비전

비전은 미션을 수행해 가는 길의 전망 곧 미션 수행의 성과로서 그려보는 미래상 또는 미션 수행의 목표입니다.

이는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 앞으로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에 관한 생각입니다.

궁극적 비전은 같을 수 있습니다.

과정적 비전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범위나 속도,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이 이룬 성과와 처지와 역량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더 크게 좌우하는 건 '시선'입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 '복지사업'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아주 다른 비전이 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가리키는 말이 되게 이야기함이 좋습니다.

복지사업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예컨대 '사회복지 전문성 실현을 선도하는 복지관 되기',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사회복지관 되기'

이렇게 복지사업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비전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이나 열정이 생길까요? 이런 복지관 만들자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원이 있을까요?

미주 35 : 영영사전과 어근으로 보는 미션 비전 개념

미주 36 : 핵심 전략

2. 기준

1) 미션 비전의 개념을 통일합니다. 개념에 부합하는 말이 되게 이야기합니다.

2) 미션과 비전이 서로 부합하게 합니다. 서로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따로 놀지 않게 하는 겁니다.

3) 미션 비전이 그러해야 하는 까닭, 미션 비전의 근거, 근본을 밝힙니다. 근본 없는 미션 비전엔 믿음과 열정이 생기기 어렵고, 믿음과 열정이 없으면 미션 비전과 실무가 따로 놀게 됩니다.

4)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가리키는 말이 되게 합니다.

5)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방법과 사회사업가 정체성에 들어맞게, 서로 모순이 없고 따로 놀지 않게 합니다.

6) 사회사업 실무에 닿게,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구체화합니다. 사회사업가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참고 : 복지요결 '연구 방법', '사회사업 이상의 연구 방법'

7) 형식

① 예컨대 비전이 세 가지라면 세 가지 비전이 동급 동위의 상호배타적 항목이게 합니다.

② 타동사형이든 자동사형이든 명사형이든, 표현 형식을 통일합니다.

③ '~하고, ~하고,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기하지 않습니다.

④ 미션에는 미션만, 비전에는 비전만 씁니다. 수단 방법 따위를 혼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를 통해', '~으로써' 따위를 쓰지 않습니다.

참고 : 복지요결 '기획서의 목적 목표 기술 형식'

8) 세 가지 이내로 간략하게 만듭니다. 세 가지를 넘거나 복잡하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3. 시기와 주체

1) 어떤 기능이 필요해서 기관을 만들거나 유지합니다. 그 어떤 기능이라는 게 미션입니다. 보통 법 지침 정관 운영규정 따위에 명시합니다.

기관을 설립·수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는 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그 미션에 대한 확인 동의 수용을 전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기관을 설립·수탁하거나 기관에 취업한 후에 미션 작업을 한다면, 명시적이든 아니든 기정의 미션을 찾아 정리하거나 사회사업적으로 표현하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직원이 기관의 미션을 정한다?

보건소 직원이 보건소의 미션을 정할까요?

복지기관의 미션은 국회나 정부 또는 운영자가 제시하지 않을까요?

3) 비전은,

기관을 설립·수탁할 때 설정했더라도 성취 속도와 수준, 시대 상황, 당사자와 지역사회 및 기관의 처지와 역량 따위를 헤아려 필요하면 언제든 조정하거나 새로 만듭니다. 지도자가 제시하거나 직원들과 함께 설정합니다.

4) 미션 비전을 전 직원이 함께 만들어야 할까요?

합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션 비전이 그러해야 하는 까닭, 그 근본까지 합의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수결로 정할까요?

미션 비전 수립 작업에 참여해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적극 적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직원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미션 비전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 미션 비전 작업을 한다면, 기관의 미션 비전을 이해 숙지하고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4. 활용

1) 사업을 기획할 때

기획이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미션 비전과의 정합성을 따지는 겁니다. 미션에 어울리는 사업인지, 그 사업을 그렇게 하면 비전을 이루는 데 유효하겠는지 검토하는 겁니다.

슈퍼바이저는 직원이 미션 비전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게 돕고, 직원의 사업 계획에서 미션 비전과의 정합성을 찾아 칭찬 응원해 줍니다.

2) 사업을 실행할 때

미션 비전에 맞게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미션 비전과의 정합성을 챙기는 겁니다. 미션 비전에 들어맞아야 바르게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직원이 미션 비전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게 돕습니다. 직원의 사회사업 행위에서 미션 비전에 부합하는 점을 민감하게 알아줍니다. 미션 비전으로써 그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3) 사업을 마칠 때

미션 비전과의 정합성을 평가합니다. 미션 비전에 비추어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나누며 배움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슈퍼바이저를 비롯한 동료들은 미션 비전으로써 그 일의 의미를 찾아 세워 줍니다. 정합성의 작은 단서라도 민감하게 알아줍니다. 서로 칭찬 감사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는 미션 비전과의 정합성을 꼼꼼히 따져 챙기고, 평가회에서는 잘해 온 것을 나누는 겁니다.

단편

1. 사회사업가의 숙제

자꾸만 문제를 들춰내고 문제와 싸우려 드는 복지사업이 문제입니다.

약자를 분류 분리하는 복지사업이 문제입니다.

자존심 죽이고 굽실거리며 약자 노릇 하게 만드는 복지사업이 문제입니다.

당사자를 대신하고 지역사회를 대신하는 복지사업이 문제입니다.
이웃 인정 대신하고 상부상조 대체하는 복지사업이 문제입니다.

약자를 우민화하고, 이웃을 자원화하고, 지역사회를 비인간화하는 복지사업이 문제입니다.

지금 방식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마땅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현실을 핑계하며 순응 방조하거나 오히려 편승 가세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복지사업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수습하는 일, 복지사업 폐해에서 사람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일, 지금은 이것이 사회사업가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주 37 : 농촌 복지사업의 부작용

2. 님비형 자원봉사

와서 도와주세요. 당신 마당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가서 도와줄게요. 내 마당엔 들어오지 말아요.

한쪽은 봉사를 받고 그 마당을 보호해 줍니다. 다른 쪽은 봉사해 주고 제 마당을 지킵니다. 봉사로 님비를 세탁 호도합니다.

이런 봉사가 나눔 도움의 본디 모습은 아닙니다. 나눔 도움은 제 마당 제 삶터에서의 평범한 일상이었고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돕습니다. 문제는 복지사업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제 마당 제 삶터 밖에 따로 떼어 두고 돕는 님비형 봉사가 성행합니다. 님비형 봉사 배분 배치하는 사업이 큰 시장을 이룹니다.

이런 일은 사람과 사회를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1) 인간관계 왜곡

①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에서는 대상자의 격이 떨어져 보이기 쉽습니다. 봉사자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대상자는 구차해 보이기 쉽습니다. 봉사자의 명예와 대상자의 불명예가 비례하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은 봉사거리나 일감 따위로 대상화하기 쉽고, 주는 사람은 자원화하기 쉽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어 버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② 돕고자 하는 마음이나 돕는 행위는 귀합니다. 문제는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를 왜곡한다는 점이고 사회사업가가 그런 왜곡을 주동하고 조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도와주었다고 봉사자라고 하지 않고 도움받았다고 대상자라고 하지 않는데 사회사업가를 만나면 '봉사자 대 대상자'라는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되곤 합니다.

2) 악성 소외 초래

① 소외된 사람을 위한 봉사가 자칫 그 사람을 봉사거리로 대상화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조차 소외되는 악성 소외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당사자가 하게 부탁하지 않고,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하지 않고, 당사자가 선택 통제하게 하지 않고, 그저 대신 해 주는 봉사, 이런 봉사가 사람을 소외시키는 겁니다.

②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제구실이나 주인 노릇은커녕 선택 통제조차 하지 못하는 현상, 봉사자의 선행에 종속되어 자주성을 잃어버리는 현상, 이것이 자원봉사에 의한 소외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봉사에서 소외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적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원봉사가 자칫 소외된 사람에게 더 비참한 인격적 소외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지역사회 사막화

메말라 가는 사회에서 후원 봉사 끌어내니 사회가 더욱 메말라 갑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의 나눔 도움이 사라져 갑니다.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샘솟는 복지 우물과 지역사회를 굽이돌아 흐르는 복지 시내를 버리고 복지시설, 복지사업, 후원 봉사라는 복지 저수지, 복지 수도, 복지 생수로써 도우니 복지 우물이 마르고 복지 시내가 죽어 갑니다.

후원 봉사 성하고 복지사업 번창할수록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죽어 갑니다. 지역사회라는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여 바로 그 땅을 불모지로 만드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사막화하는 겁니다.

자원봉사라고 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 마당 제 삶터 밖에서 대상자를 직접 돕는 '대인봉사'에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 삼가고 경계할 일입니다.

후원 봉사로 얻는 게 많기는 합니다.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후원 봉사 끌어다 쓰기, 쉽고 달콤한 유혹입니다.

피 묻은 칼 얼음을 핥는 북극 늑대는 혀가 상하는 줄 모릅니다. 제 피를 먹게 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락 접촉 왕래하는 사람을 도울 때는 후원 봉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후원 봉사는 주로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나 일상생활 밖에서의 행위에 쓰는 말입니다. 대상자를 사람 사이 바깥 어디엔가 따로 떼어 두고 돕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후원 봉사 성행하는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의 본연일 리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약자가 없는 사회, 문자 그대로 비인간적 사회입니다. 약자를 복지기관에 맡기고 후원 봉사나 하게 하는 일이 민망하고 두렵습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나 일상생활 밖에서 특별히 시간 내고 돈 들여 돕는 님비형 후원 봉사… 사회사업가가 주선해도 될까요?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임피형 나눔 도움'이게 주선함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복지 자연력을 저마다 제자리에서 직접 살려 쓰게 주선하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살려 쓰는 자연력이라야 부작용 없이 오래갑니다.

2002. 11. 8 오래전 글입니다. 지금 실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지역 주민이 자원?

1) 복지사업을 중심에 두고 보면 지역 주민을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사업을 위해 개발 동원 활용할 자원이라는 말입니다.

2)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중심에 두고 보면 지역 주민은 그 사람살이의 주체입니다.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사람'입니다.

자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물질 재능 정보 지식 지혜 체력 시간 따위가 자원입니다.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복지수단이 자원입니다.

자원이라는 용어에 관한 사전의 풀이나 언중의 이해를 시비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로서는 좀 민망하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을 자원이라고 하는 뜻을 모르지 않으나 사회사업가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생각하며 그 사람살이를 세우는 데 뜻이 있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 복지사업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 말이 되게 하는가?

사회사업 용어와 개념과 실제가 대개 이로써 좌우됩니다.

4. 요양보호와 활동지원

1) 요양보호나 활동지원 행위를 사회사업 개념대로,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에 맞게, 사회사업가답게 합니다.

요양보호와 활동지원 행위 목록(미주 38)을 보면, 사회사업 개념대로,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에 맞게, 사회사업가답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대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 요양보호나 활동지원 행위를 응용하여,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사업 상품'을 개발 판매합니다.

이를테면 정치·경제·교육·문화·취미 활동, 나들이, 반찬·식사 마실, 차 마실, 노인정 활동,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둘레 사람을 돌아보는 일… 이런 일과 요양보호나 활동지원 행위를 연계하는 겁니다.

① 이런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활동을 계획 준비 실행할 수 있게 요양보호나 활동지원 행위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사회사업 프로그램 또는 개인별 복지 활동을 당사자가 계획 준비 실행하거나 참여하는 데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 사업과 연계한 일종의 묶음 상품입니다.

② 요양보호나 활동지원 사업에 사회사업가가 개입할 만한 이유, 사회사업 기관의 정체성과 강점에 어울리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다운 요양보호나 활동지원 상품을 제시하자는 겁니다.

이런 상품이 없으면 여느 영리사업체와 무엇이 다르다 할까요? 경쟁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주 39 : 목표, 이유

5. 사회사업 운동

경영자라면 ①가치와 비전 ②생산과 유통 ③인재, 이 세 가지를 벼리로 삼아 경영할 겁니다. 가치와 비전으로써 직원을 동기화하고, 생산과 유통 체계를 효율화하고, 인재를 구하여 즐겁게 일하게 하면 기업이 잘될 겁니다. 미주 40: 전쟁의 벼리

사회사업 운동도 그렇습니다. 사회사업 근본으로써 동기화하고, 서비스 생산 및 유통 체계를 효율화하고, 인재를 개발하여 즐겁게 일하며 성장 발전하게 돕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사업 운동의 벼리입니다.

사회복지정보원은

1) 1990년대 초·중반에는 주로 생산과 유통 체계 곧 서비스 기반 내지 운영 체계의 효율화에 관심을 기울여서, 국민복지종합정보시스템, 사회사업 프랜차이즈, 중개유통, 가상 복지관, 현장 중심 근무, 정보 기술 활용 따위에 주력했습니다.

2)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인재 양성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① 전국사회복지대학생캠프, 대학생 동아리, 복지순례, 실무합숙훈련, 학습여행, 백두대간 겨울산행, 시골사회사업, 실습생 합동연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카데미복지관, 사회복지학 사전 서비스, 학습권 운동을 만들거나 제안했습니다.

② '학창시절을 즐겁게, 복지인생을 즐겁게'라는 정서적 목표를 강조하고 우정과 낭만, 쉼과 낙을 누리게 힘썼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 지지와 격려,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함께 성장 발전하도록 관계 소통을 도왔습니다.

3) 200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따위의 근본을 확산하는 데 힘썼습니다. 복지요결을 파일로 공유하고 책으로 나누고 순회 강독하며 현장 사회사업가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 운동 자세와 과제

2001년 2월 6일부터 한 달쯤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회복지운동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마지막 토론 글의 일부입니다. (원문 : 실천적 지식인이란?)

첫째, 사람마다 생각이나 처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써 사회복지를 위하고, 어떤 분은 순수연구로써 사회복지를 위합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와 인정을 중히 여기고, 어떤 분은 정의와 원칙을 중히 여깁니다. 어떤 이는 과정을 중시하고 어떤 이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는 편이 최선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긍정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을 약화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나서지 않는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중인지, 망설이는 중인지 모릅니다. 나서지 못할 사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넓게 하여 두루 헤아려 주기 바랍니다. 논쟁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 바람입니다.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한 운동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운동 과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산 대부분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로 써 버릴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소홀히 하는 복지관 사회사업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람을 온상 속 화초처럼 돌보는, 시설 안에서만 정성으로 친절하게 열심히 돌보는, 그래서 평생 무기수처럼 애완동물처럼 수용 보호하는 시설 사회사업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제도와 학부제, 학생 수에 비해 교수가 부족하고 전공과목 수가 부족한 현실, 이런 게 미래 사회복지를 도둑질하고 있으니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운동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진짜 큰 도둑을 잡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바라는 겁니다. 목표와 방법이 핵심에서 벗어난 채 열심히만 하는 정직한 사회복지사가 큰 도둑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미래 사회복지를 훔쳐 가는 사회복지 교육 여건이 진짜 큰 도둑 아닐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6. 행사 원칙

1) 핵심 고객에게 주력합니다.

제대로 해 보고자 하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고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열정이 없고 수동적인 사람, 초보자나 뒤쳐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행사 수준을 높여서 열정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배우고 누리고 성장하게 돕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람의 긍정적 기운이 약한 사람을 견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약한 사람이 배우고 누리고 성장하게 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이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이렇게 핵심 고객에게 주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을 헤아려 선택 집중해야 합니다.

※ 머리와 가슴 사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고도의 조직을 지향하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나 소외감을 주었을 겁니다. 정보원 일은 이러한 고통을 대가로 치러 왔습니다.

이 방식이 저를 괴롭게 하며 또 저를 소외시키곤 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한 남의 비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괴로워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머리와 가슴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책임자로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에 지금도 얼마쯤 그러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책임 내려놓고 약한 사람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며 넉넉히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주최 측 사람, 행사를 준비 진행하는 사람이 잘 배우고 누립니다.

예를 들어 강의 시간에는 일찍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아 경청합니다. 밖에서 안내하고 있거나 들락거리지 않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 딴 일 보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스마트폰 만지는 사람, 자는 사람은 그냥 놓아두고 강의에 집중합니다. 프로그램을 공지했으면 참가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시설이 불편하다 숙식이 초라하다 안내나 진행이 엉성하다… 이런 말에 낙심치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다만 핵심에 집중합니다. 부정에 대응하기보다 긍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민원 처리하듯 문제를 찾거나 접수하는 건 대개 좋은 수가 아닙니다.

주최 측 사람의 부정적 생각, 부정적 표현이 행사를 망칩니다. 예를 들어, 이 강사 저 진행자가 죽 쑤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부정적 기가 나와서 전체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지루하시죠, 피곤하시죠?" 하거나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강의·발표·진행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고 잘 배우고 누린 사람의 감동과 여운을 깨 버리기도 합니다. 부정을 확대 강화할 뿐입니다.

강의·발표를 평가하고 행사 걱정이나 하고 있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다른 참가자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좋은 건 좋은 대로 배우고 누리고, 그렇지 않은 건 거울삼아 나를 다듬을 일입니다.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잘되지 않을수록 먼저 내게 유익하도록 의미를 찾거나 만들고 솔선하여 적극 경청하고 참여함으로써 부정적 기를 덮어 버릴 만큼의 긍정적 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행사가 잘되고 못되고는 '기'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주 41 :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사업

정의로운 사회, 인간적인 세상을 위하여

미주

1. 전문가주의의 야사

복지 전문가주의는 사람과 사람살이를 바꿔 놓았습니다.

당사자를 복지사업 대상자나 후원 봉사 대상자로 만들었습니다. 더러는 실적 재료나 상품 소비자로 쟁탈하게 되었습니다.

둘레 사람을 복지사업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러는 복지 상품으로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살이를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사업으로 만들고 더러는 후원 봉사로, 보험 급여나 바우처 상품 따위로 바꾸었습니다.

전문가주의 발달사는 이렇게 사람을 대상화하고 이익의 재료로 쟁탈해 온 역사입니다. 사람살이를 사업과 상품으로 바꾸어 온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 복지기계가 있습니다.

2. 복지기계

복지기계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을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는 수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가 쪽의 재주나 자원으로 복지를 이루어 주는 사업이 복지기계입니다. 그 재주나 자원이 복지기계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는 사회사업가나 복지기관이 복지기계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을 대체하는 복지 제도와 예산이 복지기계입니다.

3. 그래야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약해지는 것을 허물어 버리고 대체하는 일이어야 했을까? 약해지는 것을 예방 억지하고 약해진 것을 회복하고 약한 만큼 보조하는 일일 수는 없었을까?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는 복지 대행업자 노릇을 해야 했을까?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는 노릇을 주로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4. 약자 모순과 존재 모순

1) 약자 모순

약자를 돕겠다면서 따로 떼어 돕습니다.

따로 떼어 도우니 당사자의 관계망 곧 지지체계가 허술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더 쉽게 더 자주 더 크게 깨지게 됩니다. 문제에 대해 더 취약해지고 복지기계에 더 자주 더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약자를 따로 떼어 도움으로써 약자가 더 취약해지는 현상, 약자를 돕는다면서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현상, 이것도 복지기계의 모순입니다.

2) 존재 모순

약자를 줄여야 할 사회사업가가 약자가 있어야 먹고살 수 있고 문제를 줄여야 할 복지기계가 문제가 있어야 유지되는 현실이 모순입니다.

약자를 위해 사회사업가가 존재하지만 실상은 사회사업가를 위해 약자가 필요(?)합니다. 복지사업을 위해 복지기관을 만들지만 이내 곧 복지기관을 위해 복지사업을 만듭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도우려고 복지기계를 만들지만 후에는 복지기계를 유지하려고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동원합니다.

이처럼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현실이 복지기계의 존재 모순입니다.

5. 삶을 거두어 연명시키는 복지기계

어설프고 더디고 힘들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그래도 당사자의 삶이게 해야 할 텐데, 세련되고 빠르고 쉽고 풍족하고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복지기계로 그저 연명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맡겨 주십시오.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인격적 사회적 생명이 끝났다.’는 사망 선고 또는 ‘이제 인공복지로 대신하겠다.’는 연명 서비스 개시 선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당신이 주인 되어 누리는 당신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가족 친척 친구 선후배 동료 교우 이웃, 그렇게 어울려 살아온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도 멀어집니다. 기껏해야 사회사업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봉사자입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자기 삶과 사람살이를 내려놓고 복지기계에 순응하거나 의존하여 그저 연명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격적 사회적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6. 옛날 고려장 노인은 그래도 어른다움을 잃지 않았는데, 지금 노인은 어른다움은커녕 사람다움조차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7.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이 1985년에 성모자애재활원 수탁, 시각장애인 65세대 200여명 수용, 1998년 시설 폐지

동아일보 1992.12.27. 기사 ‘성모재활원삼중고 시름’

8. 조건을 다 갖추면 그때부터 행복이 지속될까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만 가지 좋은 것을 가졌어도 단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할 때는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고 행복할 때는 불행해질까 두려워하는 인생, 행복에 목매고 사는 인생을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9. 행복과 가치

행복을 추구한다면

가치를 생각하고 가치를 좇아 행하고 가치로써 성찰하고 가치 때문에 고뇌하며 불행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행복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이나 자연이나 심지어 신까지도 이용하려 들지 않을까, 사랑도 수단화하지 않을까,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10. 수월성

"사회사업은 마음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사회사업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사회사업가만이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걸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남과 다르게 특별히 잘하는 것, 남보다 월등하게 나은 점, 이런 걸 수월성秀越性이라고 합니다. 특정 직업의 전문성이나 배타적 독특성을 말할 때, 즉 우리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11. 나만 그런가? 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아 말하지 못합니다. 혼자 잘난 척 한다고 욕할까 봐, 사회성 없다고 비난할까 봐, 따돌릴까 봐, 입지도 않은 옷을 아름다운 옷이라고 합니다.

12.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사의 고유 업무?

이제는 사례관리를 내세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인 양하기도 합니다.

평가할 때 사례관리 실적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례관리 전담 부서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사례관리학회도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례관리교육을 합니다. 사회복지계는 그야말로 사례관리 전성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례관리는 별다른 기법이 아닙니다. 실천 모형이랄 것도 없습

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획하고 주선하고 조정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고유 업무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11년 치매사례관리 지침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자의 1순위도 아닙니다. 치매 사례관리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전문 치료사 등 국가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기관의 인력을 조사하는 설문지에는, 요양보호기관의 인력에 사회복지사가 아예 없습니다.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분개·항의해야 할 일인지 모르나, 자신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라서 사례관리를 더 잘할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사례관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기나 한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책에서조차 사례관리 개념 정의나 사례관리 실천 모델이 학자마다 달라서 혼란스럽기만 하니 말입니다.

※ 2011년 무렵에는 사례관리라고 썼습니다. 그 당시 용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13. 영화 '굿 윌 헌팅'에 나오는 상담 장면, 그 장면에서 권위 있다는 상담 치료 전문가들의 기법이 얼마나 무색합니까?

사람 다루듯 재주 부리다 망신당하는 꼴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14. 잘 모른다, 그러니 성의가 없다? 잘 도울 수 없다? 글쎄요.

사전 지식이 있다 = 성의 있다
사전 지식이 없다 = 성의 없다

이제는 이런 등식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 지식 유무로 성의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사전 지식이 있다 ≒ 성의 있다
사전 지식이 없다 ≠ 성의 없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지식이 있다'는 대략 '성의 있다'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모른다는 사실이 곧 '성의 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 대하여 잘 모른다, 지역사회에 대하여 잘 모른다, 그러니 성의가 없다? 그러니 잘 도울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사전 지식을 얻는다 해도, 그 지식으로 그 개개인을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그렇다면 모르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모릅니다. 좋다, 좋지 않다, 어느 쪽으로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 지역사회에 대하여 알고 가도 장단점이 있고, 모르고 가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든 모르든 겸허하게 다가가 묻고 싶습니다.

모르면 몰라서 묻습니다. 알면 안다고 교만하지 않을까 방자하지 않을까 상대를 소외시키지 않을까 대상화하지 않을까 실례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서 묻습니다.

물으면 잘되고 물어야 잘되는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알아서 유익할 때도 있지만, 몰라서 오히려 잘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15. 사회사업에 관한 한 차라리 소인(素人)이고 싶습니다.

소인(素人) : 명사 어떤 일에 비전문적 · 비직업적인 사람 또는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

"나는 그 일에 관한 한 소인임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의어 : 문외한, 비전문가, 아마추어

16. 전문가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일을 잘할 수 없다면 이 문제가 중요하겠으나 과연 그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로 인정해 주어도 일을 못하면 스스로 괴로울 테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일을 잘하면 스스로 만족할 겁니다.

실제 행하는 일로써 평가받아야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받는 평가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17. 전문직의 배타성

전문직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필요와 형편에 맞게 서비스를,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문직의 배타성이 그것을 박탈해 버립니다.

예컨대 한방, 민간요법, 자연치유, 양방 따위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의사들의 배타성과 영역 다툼 때문에 환자들은 선택권을 빼앗겼습니다.

복지사업도 그러합니다.

본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나눔 도움이었는데 사회복지사가 나서더니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대신하는 복지대행업을 세우고, 본디 복지 주체였던 사람들을 대상자와 보급 부대로 전락시켜 밀어냅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비전공자들이 못 들어오게 할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복지사업에서 전공자만 할 수 있다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문직이라고 주장하며 자격을 따지는 모습이 사회복지사 집단 이기주의, 보신주의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 먹여 살리는 일자리로 보일지 모릅니다.

18. 타전공자 비전공자에 대하여

사회사업 현장에 타전공자 비전공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사, 특수교사, 임상심리사, 변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운전기사, 열관리기사, 사무원, 위생원이나 미화원, 영양사, 조리사 같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에서 복지에 기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급대원, 경찰관, 야쿠르트 아줌마, 생활설계사, 커피숍 주인, 의사, 성직자, 경비원, 택시기사, 이장, 부녀회장, 가정주부… 다양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복지에 기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전공자 비전공자들과의 관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하여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우리 구실, 우리 몫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더욱 헌신적인 사회사업가, 실력 있는 사회사업가, 인격적인 사회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회에는 학문적 배경이나 일하는 분야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중 하나일 뿐이므로 우리는 타 영역, 타전공자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중 속으로 스며들고 확장하는 원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원문 : 2002년 2월 '제8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정예화캠프' 여는 글

19. 사회복지사는 배고픈 직업?

그 정도면 먹고살 만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류층은 아닙니다. 영세민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족한 줄 모르고 월급 적다고 한탄하며 스스로 배고픈 영세민이라고 하거나, 저축하면서도 나눌 줄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사회복지사는 영락없는 영세민입니다.

내 집 마련 적금 넣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고? 글쎄요. 집을 꼭 사야 하는지 의문이고, 그 때문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쌓아두면서 궁상떠는 꼴이 민망합니다.

자기 집에 살든 남의 집에 살든, 사람은 누구나 잠시 세 들어 살다 가는 게 아닐까요? 집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지라도 잠시 살다 갈 뿐입니

다. 어떤 사람은 집을 위하느라 잘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있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2000. 3

집과 차를 내려놓으면 우리도 잘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집과 차를 위해 쓰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을 다르게 쓴다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소유하기보다 '공유 향유하는 삶'이 진정 부요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20. 걸인을 만날 때

어렵습니다. 명색이 사회사업가인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니 자괴감과 무력감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잘 입고 잘 먹고 안락한 집에서 편히 지낸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여전히 숙제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버젓해 보입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환경, 가난이 문제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약자가 되는 사회, 가난이 대물림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그런 모순과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분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군색한 변명으로 외면하고 회피하는, 의식도 의지도 용기도 없는, 제 모습이 민망합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현실에 붙잡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1999. 12. 28 ~

21. 자주 옮기지 말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래 세대에게는 낡은 관념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여러 번 옮겼는데 또 옮긴다면 영영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가 그리 넓은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 왔는지 곧 알게 됩니다.

특히 시설에서 복지관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민에서 관으로 옮기면, 언제든 더 좋은 조건 찾아 떠날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그런 일에 대충 부리고 말 겁니다.

자기도 후배에게 그렇게 당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경력도 누더기같이 될 텐데 부끄럽지 않을까요?

2) 사회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역사회를 파악하고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1년쯤은 걸립니다. 기관에 적응하고 업무에 익숙해지는 데도 1년쯤은 걸립니다.

그동안은 인건비 이상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겁니다. 2년차는 되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고 3년은 해야 인건비 이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 나름이고 기관 나름이고 사업 나름이지만…

3) 새로운 곳 새로운 일에는 적어도 1년쯤은, 자기 시간과 힘과 자원을 최대한 투자하여 기반을 다지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반을 다진 후에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은 어느 곳 어떤 일이든 대개 1년쯤 전념하면 문리가 트입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문헌을 살피고 선행 사례를 배우고 발바닥 닳도록 두루 다니며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4) 자주 옮기면

① 직장을 옮길 때 어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거나 사정이 있겠지요. 그래도 옮겨 다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기관을 쉽게 선택하고 쉽게 버리면 기관도 그런 사람은 쉽게 부리고 쉽게 버릴 겁니다. 기관을 연습용이나 스펙 쌓기 용도로 활용하면 기관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부릴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키우려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저 그런 일에 대충 부리고 말 겁니다.

참을성 있게 일하지 않으면 기관도 그를 참을성 있게 키워 주지 않을 겁니다. 기관을 까다롭게 비판하면 기관도 그를 까다롭게 평가하고, 사소한 일에 따지고 불평하면 기관도 그의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고 통

제하게 될 겁니다.

② 몇 년 사이에 옮기고 또 옮겼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옮긴다면 영영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 찾아 현 직장을 저버리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느라 현직에 성실하지 못했으리라는 혐의도 따릅니다. 언제든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날지 모를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사회사업계가 그리 넓은 곳이 아니라 이전에 어떻게 해 왔는지 곧 알게 됩니다.

더구나 언제까지 말단 직원이겠습니까? 자기는 후배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요? 경력도 문제입니다. 경력이 누더기같이 될 텐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남과 경쟁하면서까지 자천하여 취업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자리인데 몇 년도 못 가서 버리니 안타깝습니다.

22. 가상 관계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독서와 기도와 사색을 통해, 당신 곁에 실존하지 않는 분들과 교제하며 정체성과 꿈과 열정을 유지했습니다. 슈바이처 자서전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입니다.

교류할 만한 사람이 아직 없거나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만날 여유나 용기가 없다면, 그럴 때는 가상 관계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옛 사람이든 동시대 사람이든 존경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스스로 에너지와 자극을 얻는 겁니다.

딱 한 사람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

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철썩 같이 믿어 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 쌓인 의심을 걷어 내고 다시 모두를 믿기로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퍅하여 모든 사람을 미워하려 해도 딱 한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이 밀물처럼 가슴으로 밀려와 그동안 쌓인 미움들 씻어 내고 다시 내 앞의 모든 이를 사랑하기로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 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출처 : 월간 좋은 생각 2000년 3월호

23. 기회비용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 애쓰는 사회사업가는 다정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다른 문제에 소홀하거나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24. 무임승차

어떤 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남들이 쟁취한 것을 무임승차하는 당신, 부끄럽지 않은가?"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까?

손이 입에게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말만 하고 있느냐?" 한다거나, 발이 머리에게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생각만 하고 있느냐?"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함이 이와 같습니다.

25. 무엇이 더 크거나 중요합니까?

복지정책은 사회사업보다 그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니 모든 사회복지사가 동참하여 복지 제도를 쟁취해야 한다?"

과연 복지정책이 사회사업보다 크거나 중요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농업, 환경, 자원, 물, 인구, 인문, 종교 관점에서 볼 때 복지정책은 사소한 말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마실 물이 부족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정신과 영혼이 죽어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복지정책을 말함은 침몰하는 배에서 투정 부리는 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 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정책과 사회사업을 견주는 것이 밖에서 보면 도토리 키 재기일 뿐입니다."

복지정책과 사회사업을 견주어 대소경중을 나눌 일이 아닙니다. 저마다 맡은 일에 충실하되 서로 존중하고 상호 보완·협력할 일입니다.

복지정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과 다른 지평에 서 있으나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분들이 애써 이룬 제도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직접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소중한 동료들입니다.

26. 사소한 개혁

"사소한 개혁은 빵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던져 주는 빵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소한 개혁은, 재산과 계급 관계는 개혁 전과 같은 상태로 둔 채 눈앞의 요구만을 채워 준다. 노동 시간 제한, 노동 조건 개선, 교육 기회 확대, 참정권 확대, 시민의 권리와 사회복지의 확대 따위가 사소한 개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개혁은 현재 권력을 쥔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사회의 기본 뼈대는 그대로 남겨 둔다. 사소한 개혁은 반혁명이 혁명의 요구를 무디게 하고 혁명의 열의를

줄이고자 발행하는 차용 증서와 같다."

스코트 니어링, 「희망」 도서출판 보리, 2005년. 74쪽

27.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치료

미술 음악 연극 독서 놀이 웃음 이야기 원예 상담… 이런 일로써 돕는 행위를 '치료'라고 해야 하는지, 치료라고 하지 않고도 하던 일인데, 그래도 효과가 없지 않았는데, 왜 새삼스럽게?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독서치료 놀이치료 웃음치료 이야기치료 원예치료 상담치료, 치료 치료 치료… 그저 생활 속의 평범한 활동인 것 같은데 치료라고 합니다.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꾸며 놓고 가운 입고 전문가로 행세하는 사람이 늘어 갑니다. 그만큼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사람도 늘어 갑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되어 버립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있으니 치료 사업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사업가로서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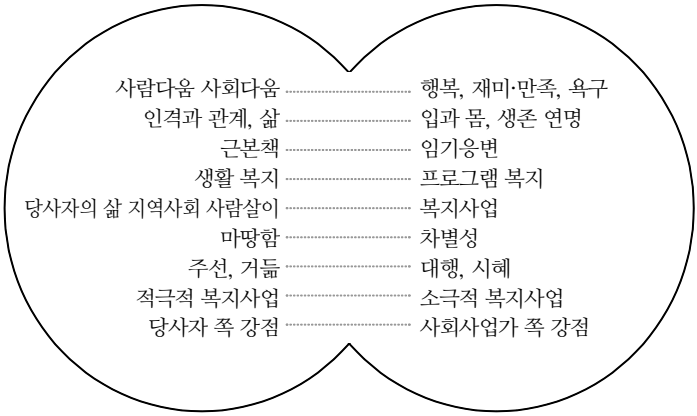
환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게 하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의 언어, 보통 사람의 선의와 진심으로써 돕고 싶습니다. 평범한 예로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고 싶습니다.

특별한 지식과 기법이라면 전문가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처럼 되어 버릴 것 같고 당사자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되어 버릴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사람, 사람, 사람… 환자 되게 하지 않고, 환자 취급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돕고 싶습니다.

28. 자연주의 사회사업의 기조



왼쪽과 오른쪽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이거나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왼쪽을 취한다고 오른쪽을 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을 좇아 행한다고 왼쪽을 다 놓치지도 않습니다.

형편과 사안에 따라 변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3) 사람다움 사회다움

행복 재미 만족 따위를 사회사업 목표나 평가 기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좇아 행할 뿐입니다. 욕구는 실천의 실마리가 되지만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4) 인격과 관계, 삶과 사람살이

생존 연명이라도 도와야 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욱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고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인간이게 합니다.

빠르고 쉽고 전문적이고 풍족하고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서비스로 생존 연명시키지 않습니다. 더디고 힘들고 어설프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그래도 당사자의 삶이고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5)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와 '복지사업' – 어느 쪽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 말이 되게 하는가?

사회사업 이론과 실제가 대개 이로써 좌우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사업 이론과 실무를 모두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가리키는 말이 되게 이야기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6) 근본책

임기응변이 때론 필요하고 최선일 수 있으나 근본책에 더욱 힘씁니다.

사회사업가 쪽의 재주나 자원으로써 문제나 욕구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근본책 곧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살려 돕습니다.

당사자의 주체 의식과 역량, 사회성과 관계망, 그리고 지역사회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7) 생활 복지

프로그램 복지보다 생활 복지를 중시합니다. 교육·체험용 프로그램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체험 활동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게 합니다.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써 배우기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생활 과업으로써, 배우게 합니다. 그 자체로 생활 과업이 해결되게 합니다.

8) 마땅함

옛 것이든 새 것이든, 남과 다르든 같든, 전문적이든 아니든, 다만 마땅함을 좇아 행할 뿐입니다.

9) 주선, 거듦

대신 해 주기보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하게 주선하고 거듭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10) 적극적 복지사업

소극적 복지사업은 문제를 직접 다루는 사업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격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낙인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굳히거나 키우고 좋은 것을 해치기도 합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은 좋은 것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격을 높이고 좋은 인상을 갖게 합니다. 문제를 해소 완화하거나 문제를 감당 극복하게 하는 간접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임의로 일을 만들 수 있다면 소극적 복지사업을 삼가고 적극적 복지사업을 벌입니다.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도 문제와 적극적 복지사업으로써 문제에 간접 대응하려 합니다.

11)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당사자 쪽 강점에 주목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해치기 쉽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약해지고 평지풍파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낮은 형세이거나 구차해 보이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가 쪽 강점 활용을 삼갑니다. 활용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당사자가 활용하게 합니다.

29. 자연주의 사회사업의 출처

어떤 이론에서 나왔다고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앞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난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생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적 사회사업?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생각할 뿐입니다. 외국 이론이나 사례가 있든 없든, 외국과 다르든 같든, 한국적이든 아니든, 사람다운 삶과 인간적인 사회를 좇아 마땅함을 구할 뿐입니다.

자연주의 사회사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외국 사례가 있느냐? 어떤 이론과 같으냐? 합니다. 외국 이론과 사례를 끌어대지 않으면 미덥지 않은가 봅니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는지라 싫어할 뿐 아니라 반복지 담론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율곡 선생께서 화담 서경덕 선생을 평하기를,

"세상의 이른바 학자들은 단지 성현의 설을 모방하여 말할 뿐 중심에는 스스로 터득한 것이 별로 없으나 서경덕은 깊이 생각하고 조예가 심원하여 스스로 터득한 묘리가 많으며, 문자나 언어의 학문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석담일기, 이이지음, 민족문화추진회 편, 270~273쪽에서 발췌

30. 정반합의 사례

예컨대 음악은 보통 사람의 생활 속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특별한 재능을 지닌 일부 전문가들 직업으로 분화하더니 사람들은 가수 노래를 듣는 청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다시 음악을 일상으로 가져왔고, 전문가들도 생활음악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청취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고 TV도 그렇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는 보통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활에 속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신체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스포츠를 선수들에게 맡기고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엘리트 체육이 스포츠 주류를 차지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다시 스포츠를 보통 사람에게 돌려주려는 생활체육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31. 무서운 전문가주의

사람을 대상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떼어 놓습니다.
사람을 문제 질병 장애 사례 따위로 부릅니다.

전문가 가는 곳에 혼을 잃고 구실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직 성할수록 이웃 인정 쇠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인격 관계 해치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사람을 우민으로 만들며 사회를 각박하게 만드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근본을 버리고 말단 서비스로 성장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예산 시설 인력 늘려 반 복지로 역행하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32. dewelfare

복지를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독점 대행하던 복지를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풀어내자는 뜻입니다.

Natural-Fare

invisible, ubiquitous, fundamental(radical), universal, normal welfare for all

Let it be the life of the client, by the client, in the client. Let it be the life of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in the community.

자연주의 사회사업의 철학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33. 동료가 발표할 때 이전 발표와 비슷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이로써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동료의 성장을 돕게 됩니다.

34. 시설의 법적 미션과 사회사업적 미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시설의 미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서비스
2) 요양 서비스
3) 지원 서비스

① 케어에 속하는 지원 : 양치 지원, 세면 지원, 배변 지원, 환복 지원…

② 사회사업에 속하는 지원 : 취미활동, 구직 및 직장생활, 학습 및 학교생활, 신앙생활, 여행·나들이, 주거 따위의 사회생활 지원과 금전 및 물품 관리, 청소·세탁·목욕, 도배, 산책·운동, 의료·건강, 취사·요리·식사 따위의 일상생활 지원

시설은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시설의 법적 미션입니다.

이 가운데 시설의 사회사업적 미션은 3)-②입니다.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시설의 미션은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3)-②에 나열한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가 입주자도 살 만하고 입주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35. mission, vision

1) A mission is an important task that people are given to do.

If you say that you have a mission, you mean that you have a strong commitment and sense of duty to do or achieve something.

mit, mis = send

transmit 전송하다, 전달하다 (trans=across)

emit 내뿜다, 발산하다, 방사하다, 방출하다 (밖으로 보내다) (e=out)
dismiss 해고하다, 해산시키다, 버리다 (dis=away)
submit 굴복하다 (아래로 보내다) (sub=under)
missionary 선교사

commit ~에 바치되 몸과 마음, 노력·시간·물질 따위를 함께 보내다
com(together) + mitt (send) → 그 정도로 중요한 '책임', 그 정도로 중시하는 '신념'이라서 그 일에 '헌신'하겠다고 '열의·열정'을 품고 '전념'하는 것, 그러다가 실수·죄를 범하기도 하여 병원이나 교도소에 '수용·수감' 되는 것이 commitment

2) Your vision of a future situation or society is what you imagine or hope it would be like, if things were very different from the way they are now.

vid, vis = see, look

visual 시각의, 눈에 보이는
visible 눈에 보이는, 명백한
supervise, supervision, supervisor 위에서 보기 (super=above)

출처 :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36. 핵심 전략

기관의 핵심 전략, 지역사회 중심 전략? 지역사회 복지 보루?

사회사업에도 병법이나 전쟁 용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 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문제 해결에도 유용해 보입니다. 다만 사회사업을 병법이나 전쟁 용어로써 이야기하자니 꺼림칙합니다.

Military metaphors

Military metaphors are frequently used by social workers that have origins in, or associations with, military activity, including 'strategy', 'engagement' and 'operational plan'.

Such terminology raises the question of why professions apparently committed to social justice, human rights and well-being should be happy to borrow terms from an institution devoted to violence, and which many social workers would regard as the antithesis of social work values.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Towards Rights-Based Practice, 4th Ed. 2022. 10. p.210

37. 농촌 복지사업의 부작용

농촌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존심 염치 팽개치고 공짜와 도움을 탐합니다. 추해졌습니다. 구차스러워졌습니다.

수급자 되려 합니다. 재가복지 대상자 되려 합니다. 생활비 주고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해 주고 봉사자 오고 도시락 반찬 주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나 자존심이 있어 그런 혜택 받지 않더라도, 배는 아픕니다. 옆에서 받으니 왠지 배 아프고 아깝고 아쉽고 섭섭하고 부당해 보입니다. 나는 땀 흘려 일하는데 저쪽은 복지관이다 뭐다 해서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은 노인끼리 반목합니다.

농업·농가 지원책의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융자받을 수 있으니 쉽게 쓰고, 특용 작물이다 뭐다 해서 잘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빚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복지 제도와 농업·농가 지원책이 농촌 사람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정신을 흐리고 공동체마저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니 지원이니 하는 괴물이 들어오면 마을 평화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농촌복지사업이 들어오면 농촌 공동체가 뿌리째 흔들립니다. 농촌이 멍들어 갑니다. 2004년 농촌 답사 후기 가운데

'문제'는 우리가 농촌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농촌을, 농촌 사람을, 문제시하거나 대상화하면 안 됩니다. 농촌 사회사업가는 농촌과 농촌 사람을 우러러봐야 합니다. 그 전통과 문화와 잠재력을 존중해

야 합니다. 그 강점을 살려 농촌 공동체를 회복 유지해야 합니다. 복지사업으로 농촌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2005. 3. 9

38. 요양보호 행위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돕는 행위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 지원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 타 오기 등
식사도움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지원(우애서비스)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말벗, 격려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이동도움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신체기능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 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그 밖의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방문목욕 :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돕는 행위 *목욕차량 미이용 포함

+ 주·야간보호 : 일정한 시간(3시간 이상)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돕는 행위 활동지원 서비스 행위 목록도 이와 비슷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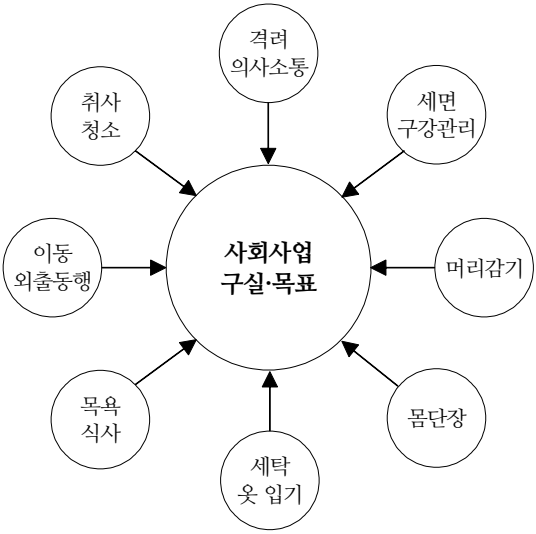
주·야간보호 : 일정한 시간(3시간 이상)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돕는 행위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신체기능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 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 있기, 일어서기, 서 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 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치매관리 지원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행동 변화 대처	배회·불결행위·폭력행위·폭언 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응급서비스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응급상황 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 대처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기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동행, 산책
신체기능 유지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도움, 보행, 서 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도움(지켜보기 포함)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 '간호 및 처치' 항목을 빼고 편집했습니다. 시설급여와 단기보호도 이와 비슷합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하는 케어도 대개 이러합니다.

39. 요양보호와 활동지원의 목표, 이유



40. 전쟁의 벼리

전쟁이라면 ①명분과 목표 ②전략과 전술 ③병참과 병사를 벼리로 삼을 겁니다.

명분과 목표를 세워 동기화하고, 전략 전술로써 작전을 세우고, 병참과 병사를 확보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겁니다.

41.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사업

사회복지사를 위한 종합복지관 재활원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따위의 사회복지사 전용 별천지 낙원 만들어 주세요.

공기 좋고 땅값 싼 곳이 '딱'이지만 도시도 괜찮아요. 아무튼 사회복지사 전용으로 따로 만들어 주세요.

사정 진단 평가하여 1급 2급 3급 사회복지사, 4년제 2년제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 양성과정 학점은행 사회복지사, 담당 주임 팀장 과장 부장 따위로 분류 수용하고 사람 이름 대신 이렇게 불러 주세요.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영세민 될 만큼 가난하대요. 일은 너무 많고 힘들대요. 이렇게 불쌍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라고 서류 꾸며서 돈 따다가 프로그램 많이 돌리고 봉사자 불러다가 돌보게 하고 결연 후원도 넉넉히 붙여 주세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놀이치료 이야기치료 연극치료 심리치료… 치료 많이 해 주세요. 생사람 잡아 환자 노릇 시켜도 좋아요.

아 참, 사전 사후 비교 평가는 필수예요, 해석은 맘대로 하시고요, 보고서에는 숫자놀음 실적 자랑만 잔뜩 늘어놓으세요.

문제 덩어리로 낙인찍고 케이스니 사례니 하며 모든 일에 항상 약자인 것처럼 종합 대상자로 관리해 주세요.

인격이니 관계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습고 편안하고 재미있게 해 주세요. 묻거나 의논하지 말고 부탁하지 말고 알아서 다 해 주세요.

아플 권리 다칠 권리 실수할 권리? 큰일 날 소리! 책임질 일 생기지 않게 철저히 보호해 주세요. 삶이니 생활이니 그딴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안전하게 생존 연명시켜 주세요.

사람다움 사회다움? 가치 이상 철학? 에이~ 현실을 모르는군요. 그냥 실적이나 채우세요.